



[산업]
신입사원 만난 최태원
“패기·딤체인지로
뉴 SK 만들자”
09



Economy

코스피 2521.74 (+18.01)	코스닥 901.23 (+9.62)
금리 (국고채 3년) 2.23 (변동없음)	환율 (원·달러) 1062.70 (변동없음) (16일)

삼성, 세계최초 ‘폴더블 폰’ 6월 출시

SAMSUNG
삼성전자
고동진 IM사장 CES서 밝혀
여러 업체들과 협업 진행
기존제품과 다른 UX제공
정체된 폰시장 활기 기대



삼성디스플레이가 개발한 휘어지는 OLED 디스플레이(왼쪽)와 고동진 삼성전자 IT·모바일(IM) 부문장(사장).



/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오는 6월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폴더블(foldable) 스마트폰’을 선보인다.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 소식을 전한 지 7년 만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IT·모바일(IM) 부문장(사장)은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8’에서 만난 기자에게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을 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출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를 책처럼 액정을 접었다 폄다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접었을 때 기존 스마트폰 크기로 휴대성을 강조하고, 펼쳤을 때 تبل릿 크기로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일반 플렉서블 제품에 비해서도 한발 앞선 기술로 평가된다.

앞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ZTE가 지난해 10월 듀얼 스크린이 적용된 폴더블 스마트폰 ‘엑손 M’을 선보인 바 있다. 이 제품은 경험을 활용해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연결한 것으로, 하나의 화면이 접히는 것이 아니어서 진정한 폴더블폰으로 부르기에 무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 사장은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눈길만 끌고 시장에서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제품이 아니라 진짜 잘 만들고 싶다”며 “폴더블폰에 맞는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폴더블 스마트폰을 폄을 때와 접었을 때 이전과는 다른 서비스를 소비자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 고 사장의 생각이다.

고 사장은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기존 스마트폰과는 다른 사용자 경험(UX) 제공하고자 여러 업체들과 협업을 진행 중”이라며 “6월 중에는 이러한 경험을 더해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전시장을 별도로 꾸리고 VIP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 개발은 완료됐으며 VIP들의 의견을 수용한 뒤 올해 6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CES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공개된 폴더블 스마트폰은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과 밖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 모두 선보였으며, 삼성디스플레이가 개발한 7.3인치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탑재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로, 정체를 맞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은 매년 두 자릿수를 성장세를 보였지만 2016년부터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개념의 폴더블폰이 출시될 경우 그 동안 침체된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

리틱스(SA)에 따르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부터 시장이 조성돼 내년에는 320만대, 2020년 1360만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에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2021년 3040만대, 2022년 501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애플도 최근 LG디스플레이와 함께 폴더블 아이폰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오는 2020년 출시가 목표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의 움직임은 더 빠르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샤오미도 지난해 ‘접었다 펼 수 있는 모바일 단말기에 사용되는 연결부분과 접이식 폰’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하고,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오포와 레노버는 시제품을 공개한 상태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신기루인가, IT혁명인가
코인 이야기 8 가상화폐 내재가치

투기대상 화폐개념 아닌 컴퓨팅 파워 사용할 권리

가상화폐는 ‘화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물 화폐와 큰 연관은 없다. 단지 거래와 환율을 초월한 송금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등장하면서 화폐를 대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을 뿐이다.

가상화폐의 가치를 파악하려면 먼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떠오른 블록체인을 생각해 봐야 한다. 기존 데이터베이스(DB) 방식의 시스템은 모든 데이터가 서버로 집중된다. 따라서 해킹으로 인한 위·변조의 우려가 있고, 관리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서버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블록체인이며 그 핵심은 분산 원장 시스템이다.

블록체인은 참여자 각각이 분산해 데이터를 보관하며 상호 대조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플랫폼이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부를 고치는 것과 내용이 동일한 1만개의 장부를 일순간에 모두 고치는 것을 비교해서 생각하면 된다. 비트코인의 경우 10~15초 간격으로 전세계 데이터를 동기화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며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또한 데이터가 분산되는 만큼 막대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두는 중앙 서버 역시 필요치 않게 된다.



블록체인의 모식도. 블록체인은 각 참여자 개인이 상호 연결된 형태로 작동된다. 가상화폐는 이 체제를 지탱하는 보상으로 작용한다.

블록체인의 모든 노드는 모든 거래력을 분산 원장 형태로 보관한다. 따라서 모든 노드는 본인의 거래 외에도 다른 거래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금융감독기관 등 국가 기관이 블록체인에 참여해 전체 거래를 확인하는 것 역시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거래력이 보장되기에 제 3자 보증이나 상호 신뢰 없이도 참여자 사이 거래가 가능하다. 유엔세계식량계획이 시리아 난민 지원 프로젝트에 블록체인을 적용했던 것이 좋은 사례다.

이전까지 유엔세계식량계획의 지원금을 받을 난민은 제 3자인 금융업체로부터 신용을 보증받아야 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 난민들의 가상 계좌를 만들어 가상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했다. 난민들이 휴대 인식 기계를 블록체인에 로그인해 직접 물건을 구입하자 비용 부담을 불러일으키는 금융업체의 개입은 필요치 않게 됐다. <6면에 계속>

/오세성 기자 sesung@

현대차 ‘임단협’ 24차례 파업 끝에 마무리 수순

조합원 투표서 61% 찬성
기아차도 잠정합의안 도출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마라톤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기아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임단협이 가결된 만큼 더 늦어지기 전에 협상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 4만 9667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만 6082명(투표율 92.78%) 가운데 2만 8138명(61.06%)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사는 이번 주중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열 계획이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진행된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노사는 4차례 교섭을 진행하며 합의를 이끌었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5만

8000원 인상(정기승호·별도승호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00% + 280만원,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 20만 포인트 지원,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 추가 직영 특별고용 등 1차 잠정합의안 골격을 유지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 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아차 노사도 지난 15일 열린 임금교섭에서 2017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임금성 부분은 현대차 노사의 2차 잠정합의안과 동일하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5일 27차 임금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5월 11일 상견례 이후 8개월여 만이다.

노사는 어려워진 경영환경에 대한 상호 이해와 2017년 교섭 마무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며 합의점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5만 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및 별도호봉승급 포함) ▲성과격려금 300% + 28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40만원 등이다. 총 금액은 현대차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과 동일하다. 또 이번 합의안에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공헌기금 20억 출연 ▲정년퇴직 예정자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 등 노사의 사회적 역할 증진과 종업원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기아차 노사는 2016년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채용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채용 관련한 TFT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사내하도급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잠정합의는 파업 등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임금교섭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노사문제에 의한 기아차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줄였다는 평가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 한해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부담 가중, 사드 여파로 인한 중국 판매 감소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해를 맞이하여 노사가 함께 노력해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1월 18일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 업계의 임협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지만 진통 끝에 타결된 만큼 상처는 깊게 남았다. 르노삼성과 쌍용자동차는 무분규로 임협을 끝냈지만 한국지엠과 현대차, 기아차는 모두 해를 넘겨 이어지는 파업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현대차 노조는 2017년 임단협 과정에서 모두 24차례의 파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차량 7만 6900여대에 1조 6200여억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운 기자 ysw@

코스닥 16년 만에 900선 돌파

코스닥지수가 16년 만에 900선을 돌파했다.

16일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9.62포인트(1.08%) 오른 901.23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2002년 3월 29일(종가 927.30) 이후 15년 9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장중 900을 넘은 것도 2002년 4월 1일(장중 고가 924.40, 종가 877.00) 이후 처음이다. 시가총액은 319조 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날 890선에 장을 마감한 코스피는 2.38포인트(0.27%) 내린 889.23으로 개장했으나 외국인과의 ‘쌍끌이’ 매수세가 반등을 이끌었다.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을 점점 키우더니 9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외국인과의 거래는 각각 451억원, 724억원 규모를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외국인은 올들어 11거래일간 총 7589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다. 연 초 부진했던 기관의 수



코스닥 지수가 16년 만에 900선을 돌파하며 901.23으로 장을 마감한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급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개인은 이날 983억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대장주’ 셀트리온(-9.74%)과 시총 2위 셀트리온헬스케어(-1.37%) 등이 하락했지만 그 외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올랐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

정부, 알뜰폰 활성화 한다더니

어긋난 망 이용료 협상에 시름만 깊어진 알뜰폰업계

정부, 한발 물러선 도매대가 비율책정 헬로모바일, 데이터 무제한요금제 폐지 업계 “7.2%p 인하효과 거의 없다”

“망 도매대가 협상만 제대로 이뤄져도 알뜰폰 업계를 중심으로 더 저렴한 요금제가 쏟아졌을 것입니다.”(알뜰폰 업계 관계자)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이 당초 계획과 달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알뜰폰 업체가 불똥을 맞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망 도매대가 협상에 한발 물러난 모양새를 보이며 업계의 실망감이 커졌다.

◆과기정통부 한발 물러난 조치에 알뜰폰만 ‘죽을 맛’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망 도매대가를 10%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해 11월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 평균 7.2%포인트 인하한 도매대가 비율을 책정하면서 알뜰폰 업체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애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난 여파가 곧바로 알뜰폰 업계의 사업 계획에 직격타로 작용한 것.

당장 3만원대의 저렴한 요금에 제공됐던 데이터



모델들이 헬로모바일 ‘보편 USIM 10GB’ 요금제를 소개하고 있다. /CJ헬로

무제한 요금제가 폐지됐다. CJ헬로비전이 대표적이다. 알뜰폰 최대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헬로모바일은 지난달로 월 3만3000원에 데이터·음성·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10GB 33 요금제’ 이벤트를 접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정부의 망 도매대가 인하 계획에 맞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사업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던 것인데, 기대에 못 미치는 망 도매대가 협상 결과로 인해 적자가 날 판”이라며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헬로모바일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대신 월 2만2000원에 데이터 10기가바이트(GB)와 음성통화 1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내놨다. 무제한은 아니지만, 기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요금제에 비해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실질적인 비율을 따져보면 현재 7.2%포인트로 인하한 도매대가가 별다른 인하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 올해부터 알뜰폰 업체가 이동통신사에 부과하는 기본료를 합산해 도매대가를 책정하는 등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율로 따져보면 인하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소 알뜰폰 업체의 경우 망 도매대가 인하안이 발표될 때까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요금제 계획을 짰지만, CJ헬로처럼 대기업이나 MNO 자회사가 운영하는 알뜰폰 업체의 경우 10% 망 도매대가 인하를 기준으로 기획했을 것”이라면서 “망 도매대가 업계 기대에 못 미쳤으니 그간 제공했던 이벤트성 요금제 할인 등은 폐지하고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다시 요금제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도 망 도매대가가 관건”

이제 업계의 눈은 보편요금제에 쏠린다. 보편요금제는 데이터 1GB·음성 200분을 2만원대에 제공하

는 요금제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3만원대에 제공하고 있는 요금제를 1만원 가량 낮추는 셈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이달까지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는 논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해매는 모양새다. 이동통신 3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제도 추진에 드라 이브가 걸렸기 때문. 이로 인해 새 정부가 통신요금으로 다양한 공약을 추진했지만 결국 보편요금제, 망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활성화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뜰폰 업계는 대체적으로 보편요금제에 반대하는 추세다. 보편요금제로 이동통신사에서 저렴한 요금제가 나오면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오히려 보편요금제를 추진할 때 정부가 사후처리를 확실히 한다면 알뜰폰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동통신사에서 2만원대의 보편요금제가 나오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망 도매대가 인하 조치가 함께 시행되면, 알뜰폰 업계에서는 이동사와 똑같은 조건으로 1만5000원, 1만4000원 등의 저렴한 요금제를 추진할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예비진단으로 중소기업 애로 해결

중진공, 공모형 종합진단 실시

중소기업이 올해부터 맞춤형 연계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진단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공모형 종합진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형 종합진단은 기존 종합진단과 달리 예비진단 과정을 먼저 거친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간단한 애로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종합진단까지 실시한다.

중진공은 진단을 바탕으로 기업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같은 지원사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3년간 연계지원을 및 성과지표 관리 등의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공모형 종합진단에 총 90개사가 참여했다. 중소기업이 고민 하던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진단과 해법 제시로 많은 도움이 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임현재 기자 ihj@

한줄 News

정책·사회

▲ 교육부가 어린 자녀가 있는 남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시행이 보름 정도 지난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산업

▲ 최태원 SK 회장이 2018년 그룹 신입사원들에게 “패기와 틀을 깨는 사고로 뉴(New) SK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이 16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수주목표 달성과 2019년 흑자 전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금융·마켓

▲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면서 ‘생계형 대출’인 마이너스 통장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 정부가 ‘코스닥 띄우기’에 나서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중소형주 투자에 주목하고 있다.

유통

▲ SPC그룹이 인천국제공항 제 2여객터미널 준공에 맞춰 식음료 매장 등 컨세션사업 운영을 시작한다.

지난해 장기백수 14만7000명 ‘역대 최대’

통계청, 지난해 통계결과

전년도 보다 10.5% 늘어

고용 한파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장기 실업자 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구직기간 6개월 이상 실업자는 14만7000명으로 전년도인 2016년의 13만3000명 보다 1만4000명(10.5%)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치로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8만 명과 외환위기 중이던 2000년도의 13만8000명 보다도 많은 것이다.

전체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도 14.3%를 기록해 2000년(14.1%) 당시 역대 최고 기록을 17



지난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에서 한 청년이 홀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년 만에 같아지었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이른바 ‘장기 백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이 수년간 악화를 거듭하면서 실업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7.5%였던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은 2015년 10.0%, 2016년 13.1%를 기록하며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라갔다.

청년(15~29세) 실업률도 2014년 9.0%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9.9%까지 상승하면서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장기 실업자 중 상당수가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해 오랜 기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일시적으로 구직을 포기해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다가 취업에 재도전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장기 백수 비중은 더 클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장기 실업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한국 경제의 성장이 반도체 등 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이렇듯 일자리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2차 에코세대의 대규모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화하고 있어 고용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이노비즈기업, GDP 17% 차지... ‘혁신성장의 주역’

이노비즈協, 정밀 실태조사

2016년 총 매출 271조 거둬

기술혁신에 집중하는 이노비즈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이 대기업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7708개에 달하는 이노비즈기업(2016년 말 기준)이 거둔 총 매출액은 271조원으로 국내 GDP(1637조원)의 17%를 차지했다. 또 2곳 중 1곳 가량이 수출을 할 정도로 ‘글로벌 기업군’ 반열에 올라서고 있다.

이노비즈협회가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해 16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91.6%가 연구개발조직을 보유하고, 특히 74.2%는 기업부

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당 R&D 투자비중은 이노비즈기업이 3.15%로 대기업(1.51%)과 일반중소제조업(1.3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노비즈기업이 ‘기술 혁신’에 걸맞게 R&D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노력은 실적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노비즈기업 가운데 3년 연평균 매출증가가 20% 이상인 ‘고성장기업’은 2269개로 국내 고성장기업(1만8287개)의 12.4%를 차지했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이노비즈기업의 매출증가율은 평균 4.4%로 같은 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대기업(-1.64%)보다 높았다. 영업이익

률은 평균 4.8%로 대기업(6.6%)보다는 낮았지만 일반 중소기업(3.9%)을 넘어섰다. 부채비율은 117.2%로 전년도(119.7%)보다 줄었다.

이같은 내실은 인력 창출과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이노비즈기업 1곳이 채용하고 있는 인력은 평균 42.8명으로 전체적으로 76만명에 달한다. 이는 국내 5인 이상 중소기업 종사자(220만명)의 35%를 담당하고 있는 수준이다. 전체 이노비즈기업의 50.6%가 수출을 하고, 평균 수출액은 간접 수출(19.6억원 추정)을 포함해 70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당시 평균 수출액은 46억3000만원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7.2%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출 전사 역할을

특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이노비즈협회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이노비즈기업 숫자를 2만2000개까지 발굴, 육성하겠다는 ‘혁신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100만명, 수출액 500억 달러, 기업당 R&D 투자비율 3.6%를 각각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영성과는 물론 일자리와 글로벌, 기술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뤄내는 이노비즈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국가경제 발전과 혁신성장의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최저임금에 명운건 文의 장관들, 싸늘한 민심 되돌릴까

김동연 부총리, 자금집행·홍보 등 점검
백운규 장관, 반월산단 현장 목소리 청취
“소득주도 성장 구현에 필수 사항” 호소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시행이 보름 정도 지난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각 부처별 현장 소통 강화를 강조함에 따라 연일 부처 수장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최저임금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

또한 최근 최저임금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등으로 맞불을 놓으며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최저임금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장관들이 직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만나며 정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소재 금형기업인 ㈜이레몰드를 방문해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기업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인천시 서구 가좌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현황을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 근로 소득 확충 및 일자리의 질 개선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만큼 소득주도성장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보다 널리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서도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도 지난 15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 진주2단지아파트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집행과 현장홍보 상황을 점검했다.

가좌 진주2단지아파트는 주민투표를 통해 경비·청소원 해고나 휴게시간 확대 등 편법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리비 인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충당하기로 결정한 곳이다.

김 총리가 이날 가좌 진주2단지아파트를 방문한 이유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장애인 등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을 의식한 행보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직원 해고와 품수 임금 인상 등 사업주들의 갑질 논란이 곳곳에서 발생하자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서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경영계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미용실, 주유소와 같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만큼 정부 방침대로라면 영세 사업주의 80%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는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추진사항으로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 및 고의 여부 등이 모두 확인되고 그것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돼야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보완 대책이 주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집중되자 일각에서는 장애인 및 청년 인턴 등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하단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고용주 “최저임금 인상에 폐업까지 고려”

알바생 축소 등 77% “고용 악영향”
48%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것”

아르바이트 직원을 뽑는 고용주나 점주 10명 중 약 8명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고용주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과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앱 알바콜은 점주와 고용주 1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악영향은 ‘기존 알바생 축소 고려’(21%)가 가장 많았다. 이어 ‘근무시간 축소’(19%), ‘신규 채용 취소’(18%), ‘가족 고용’(1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9%는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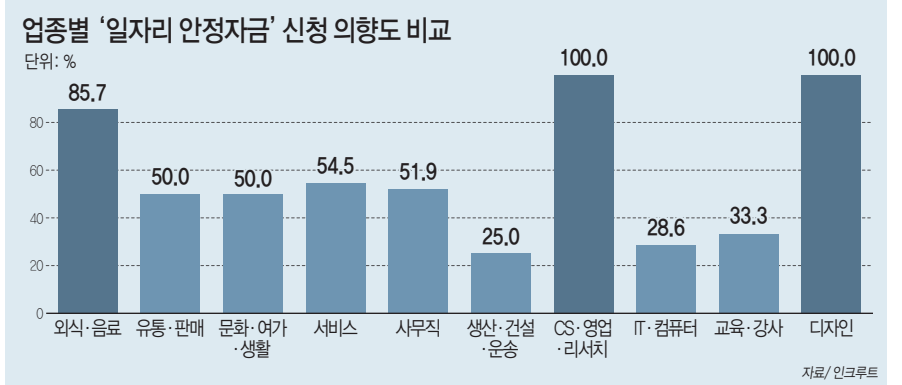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봉 동결’, ‘원가 상승 압박’, ‘단가 인상’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자영업자는 17%에 그쳤다.

업종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서로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비중이 높은 8개 업종 가운데, ‘폐업 고려’를 꼽은 업종은 외식·음료 업종이 가장 많았

고, ‘알바생 축소’와 ‘가족 고용’은 유통·판매업종에서, ‘신규 채용 취소’는 문화·여가·생활업종에서, ‘근무시간 축소’는 생산·건설·운송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해서는 58%가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31%는 ‘자세히 모른다’, 11%는 ‘처음 듣는다’고 대체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계획을 묻자 48%는 ‘그렇다’고 했지만, 23%는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청 의사가 있는 사업주들은 가장 큰 이유로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 완화’(34%), ‘대출 아닌 지급



형태의 지원이라는 점’(21%),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사전조치’(19%),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망 강화’(15%), ‘경비/청소원 등 업종특성을 감안한 유연한 정책 적용’(8%) 등을 들면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의사가 없다는 사업주가 밝힌 가장 큰 이유로는 ‘점

주와 알바생의 사회보험 가입비용 증가’라는 답변이 37%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짝 대책에 그칠 것’(31%), ‘점주입장에서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27%), ‘까다로운 지원금 수급 절차’(23%), ‘알바생 입장에서 사회보험 가입비용 부담’(10%)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용수 기자 hys@

급성 인플루엔자 A형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인플루엔자 A형 감염 환자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평가하기 위한

자격 요건

- ▶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 ▶ 시험 약 투여 전 48시간 이내 질환 발병한 대상자(체온이 $\geq 38.0^{\circ}\text{C}$ 또는 호흡기 및 전신 증상 발병 대상자)
- ▶ 참여불가:
 - 인플루엔자로 항바이러스 치료 또는 연구 참여 전 14일 이내 항바이러스제 투약력이 있는 자
 - 연구 참여 전 21일 이내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자
 - 현재 B,C형 감염 또는 HIV 감염 대상자

연구 절차

- ▶ 선별검사 후 평가하여 최종 선정.
- ▶ 본 연구에 등록 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체치료제 1회 투여 및 채혈 등의 기본 검사 진행.
- ▶ 약 110일의 기간 동안 7-10회의 방문 (상황에 따라 3일간 입원도 가능함)

참여 혜택

- ▶ 임상시험 기간 동안 전문 교수진의 집중적 진료 및 관리
- ▶ 임상시험의 모든 검사비용(혈액검사, 뇨검사 등)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
- ▶ 입원비 및 소정의 교통비 등

실시 기관

-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건국대학교 병원, 고대안암병원,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 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평촌한림대 성심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 건양대학교 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영남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외 21개 기관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홈페이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1800-6883

※ 임상시험 참여로 인해 불편사항이 발생하거나, 위험(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출 가로막는 '新 3高시대'... 3% 성장률 발목잡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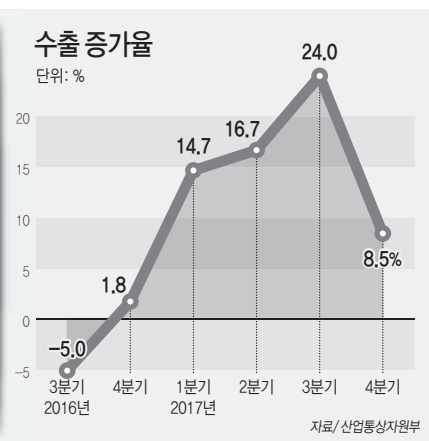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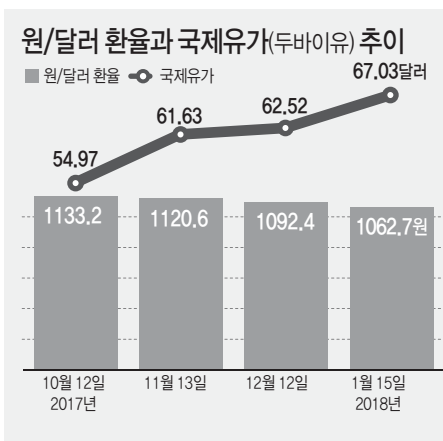
(고원화·고금리·고유가)

韓경제 성장세 하방요인으로 작용
호황업종 지속세 끊길 가능성 제시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걸림돌

최근의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세계경제 회복세와 이에 따른 한국경제 수출 호조로 정부가 올해 3%대 성장을 자신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에 힘입어 한국은행도 오는 18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발표한 2018년 한국경제 성장률(2.9%)을 3%대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올 들어 달러 대비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원화(고원화)와 고금리, 고유가 등 신(新) '3고(高)' 현상이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세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통상 '3고' 현상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가계에도 부담을 가져온다. 수출은 물론 내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들어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끈 반도체 등 업종의 수출 호황이 올해에는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된다.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도 한국경제의 걸림돌이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우리 수출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금융시장 불안정성,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 '3고' 현상 등 수출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출 증가 추세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수출 총력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해 들어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강세(환율 하락)를 보이는 등 좀처럼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인다. 금등락을 거듭하던 원·달러 환율은 16일 오전 10시 현재 1065.80원을 기록하

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지지선인 1100원에서 1070원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1050원대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오전에는 올 들어 장중 최저가인 10601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31일(1052.9원) 이후 4년 2개월여 만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환율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란 점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최근 '조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한국경제는 수출 중심의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질 경우 한국경제도 휘청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1050원대 환율을 마지노선

으로 보고 있다. 환율이 그 이하로까지 떨어지면 현대기아차는 수출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 갤럭시 등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업계도 이에 따른 대규모 평가손실이 우려된다.

대신증권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호조세를 이끄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경우 원·달러 환율 10원당 영업이익은 2000억원 내외로 영향을 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해 첫 날 1060원대 초반까지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외환업무 담당자들이 올해 환율 전망치의 수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달러 약세(원화 강세) 현상을 반전시킬 요소가 뚜렷하지 않아 1050원선 아래로까지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 지난해 말 6년 5개월 만에 0.25% 포인트 인상한 국내 기준금리(연 1.50%)도 부담이다. 기업 입장에서 대출금리 인상은 채무 상환부담을 높이고 원화 절상을 가속화시킨다. 환율과 연동될 경우에는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로 인해 가계 소비도 위축될 수 있다. 이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는 국가 경제를 잠식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최근의 고유가도 골칫거리다. 국제유가

의 상승은 국내 수입물가 상승과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국내 경기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60달러를 넘어설 경우 국내총생산(GDP)에 0.22%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다. 80 달러까지 오르면 0.96%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실제 배럴당 50달러 중반대였던 국제 유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오름세가 계속돼 현재 60 달러 중반대까지 치솟았다. 15일(현지시각)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70.26 달러(브렌트유)로 70 달러를 넘어서는 등 지난 2014년 12월 2일(70.54 달러) 이후 3년여 만 최고치를 찍었다. 시장에서 이 같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석유 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에 따른 석유 재고 감소와 올해 하루 150만 배럴가량 석유 수요 증가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올해 유가 전망은 비교적 상향 조정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초부터 한·미 FTA 개정 협상 및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두 국가와의 FTA 협상이 어떻게 풀릴지가 큰 변수"라며 "신 '3고' 현상을 잡기 위한 정부 대처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 참석자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서 체감되는 中企정책에 집중”

文대통령-중기·벤처인 청와대 만찬
“사람중심경제 中企 활성화가 핵심”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문대통령과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이 16일 청와대에서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지난해 하반기에 이들을 독대하고 정책 애로를 청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들이 새로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부처 출범도 미뤄지면서 해를 넘겨서야 만남이 성사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애정은 상당히 두텁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말 치러졌던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중소기업계에 러브콜을 보내며 당시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약속은 두 번째 대선 후보로 나와 당선된 지난해에서야 실현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도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88% 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경제로 바꿔왔다. 수출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경제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

해서다. 그 핵심이 중소기업 활성화에 있다”면서 “올해도 이런 정책 방향을 틀림없이 추진하고, 특히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술 유용 행위 근절 대책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생계형 적합업종 적극 보호 ▲청년 신규 고용 확대 지원 강화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대책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전면 개편 등 지난해부터 발표했거나 예정인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에게 힘을 불어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과 중소기업계의 청와대 첫 독대 자리엔 중소·벤처기업 주요 단체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우수기업, 창업 혁신기업, 소상공인, 재기기업 등 26명의 기업인이 두루 참석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대표 답사를 통해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서 “새로 신설한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대통령의)관심과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

與 ‘드라이브’ vs 野 ‘브레이크’... 개헌 난항

정책안 등 국회 문턱 넘지 못할 것
한국당 내부 벌써 ‘보이콧’ 조짐도

여야가 대부분의 현안들에 대해 대립하며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여당은 개헌·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야당은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들 문제들은 올해 안에 결실을 맺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이 ‘강한 대역(對立) 투쟁’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이상 정부·여당의 정책안·협상안 등은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들 현안들을 두고 벌써부터 ‘국회 보이콧’ 목소리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16일에도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해 “국회가 사각특위를 만들어 논의하려는 참인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버리면 국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은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 제대로 된 여야 협상은 안 될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연히 검찰과 국정원은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사각특위를 만들고 정보위 차원에서 관련 활동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오른쪽)가 16일 서울 마포구 케이티홀에서 열린 서울시장 신년인사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도위반까지 하면서 ‘끼어들기’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청와대를 상전 모시는 듯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막아내지 못한 한국당의 꼴이 난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선거 개헌 동시 국민 투표 관련해서도 그는 “지난 연말에 여야가 어렵게 국회 본회의 합의를 통해 올 6월30일까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 기간을 정했다”며 “그런데 청와대가 민주당을 아바타 취급하고 국회를 거수기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기다려보다가 국회에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 개헌으로 가겠다고 선포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발목잡기’·‘아무 말 대잔치’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헌법개정특위가 어제(15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개헌 저지를 공언하며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특위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고 기존 합의를 무시하는 강짜를 부렸다”며 “한국당의 ‘아무 말 대잔치’ 같은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신년사는 누가 봐도 조속한 개헌을 당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나 정권 연장 시도로 매도하는 것은 개헌 합의를 발로 걷어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교육부, 8세 이하 자녀 둔 직원 ‘10시 출근제’

교육부가 어린 자녀가 있는 남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는 방식을 대상자 전원 일괄 적용 방식으로 변경해 보다 많은 직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 키우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 돌봄 10시 출근제’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직원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할 수 있다. 기존에는 9시 이외의 출근을 희망할 경우 부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10시 이외의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만 운영지원과에 신청해 승인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실제 키우는 직원에게는 의무적으로 1일 1시간을 부여해 1일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1시간 준다. 육아시간제 대상 직원은 11명이다. /한용수 기자 hys@

마음 같아선 한 10개쯤 사두고 싶은 아파트형 오피스텔!!

살고 싶은 제주 연동



※ 상기 아이소는 A 타입 기준입니다. 그외 타입 및 기타사항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의 제작과정상 오입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배치하여 사물레이아웃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월세받고 싶은 제주 연동

한리일보

2017년 11월 17일

**제주 소형아파트가격 폭등...
분양가 1년새 31.5% ↑**

60㎡ 이하 ㎡당 평균분양가 538만원...서울 다음 비싸
61~85㎡ 평균분양가 315만원보다 200만원 이상 높아

임대관리 걱정없이 임대수익지급 OK

KT (주) 라이프테크
[TECH] (임대관리 위탁 계약 체결시)

※ 한국자산신탁은 임대수익 지급과는 무관함

주요 실적

- 16.10 제주아빌로스[임대관리]
- 17.06 서울자양동 한강파크오피스텔[임대관리]
- 17.10 역삼동 멜로즈프라자[임대관리]
- 17.04 부산호텔 더마크해운대[위탁운영]
- 18.01 반포동 더 라움[임대관리]

www.jejutruel.com

제주 연동 일성 트루엘 아파트형 오피스텔

일성건설(주)



서울모델하우스 방문시
부동산 투자가이드 도서 증정!
(부동산건설컨트 박상연 박사 지음)



다 시 없 을
투 자 기 회,
매 력 적 인
특 별 혜 택!

01 1가구 2주택
해당 없음

02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03 초기 투자금
2,000만원대
(실제 투자금 기준,
중도금 60% 대출시)

04 분양권 전매
제한 無

05 제주도 차량등록제
전격시행
1실 1주차
확보

제주의 중심입지 제주공항과 관공서, 병원, 대학교 및 기업 등 행정·업무중심지
완벽한 생활환경 이마트, 롯데마트, 바오젠거리, 롯데시네마 등 편의시설 인접
편리한 교통환경 도령로, 일주서로, 사무공원 사거리 등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
풍부한 임대수요 제주 내 1~2인가구 최다 거주지, 인근 17,000여명 이상의 배후수요

문의 (02) **6022-1669**

사행 **KAIT** 한국자산신탁
시공 **일성건설(주)**
위탁사 **아시아산업(주)**



· 한국자산신탁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070012 · 사업지 위치: 제주도 연동 260-30번지의 2필지 · 건축연면적: 16,337.868㎡ · 총호실 수: 208실
· 준공/입주예정일: 2019년 5월 예정, 분양신고 제주시청2016-건축과-분양신고-9호

·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11-416787 · 예금주: 한국자산신탁
· 동호수 지정 청약금 100만원 ※ 미 계약시 청약금 전액 환불가능

‘블록체인’ 적용땐 기업지분 변화 한 눈에… 투명성 ↑

블록체인으로 증권거래 활용시 거래속도·신뢰도·유동성 등 ↑

주주명부·재무제표 등 관련정보 공유되면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대 경영진 대리인 문제도 해결 가능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유된 거래 기록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달러이트)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에 분산해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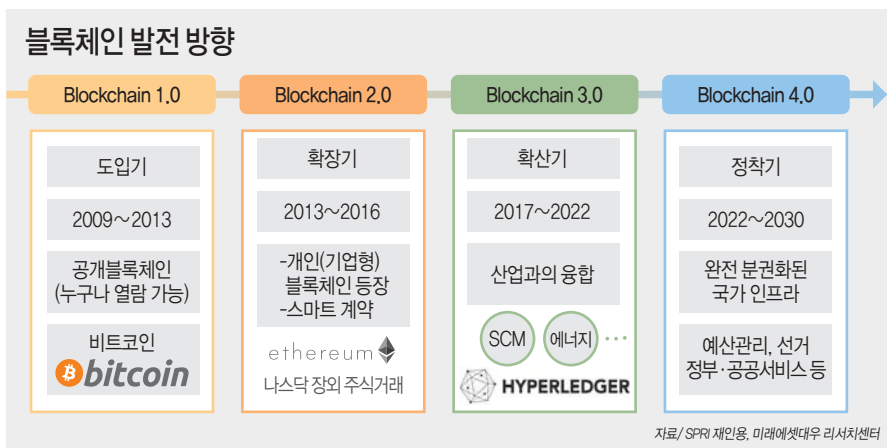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다. 자본시장에서도 블록체인이 대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권거래가 확대될 경우 거래의 속도, 신뢰도,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회계 정보를 비롯한 기업정보가 블록체인을 통해 처리된다면 기업 관련 정보의 신뢰도와 투명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이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한다

16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내부 및 외부 지배구조의 형태와 효율성’이란 논단을



통해 “증권거래 특히 주식의 거래가 블록체인을 통해 이뤄질 경우 거래의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면서 주식 거래 전반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블록체인의 특성상 이를 통한 주식거래는 기업의 지분 보유 및 변화 현황이 실시간으로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개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 그리고 기업지배권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록체인을 통한 주식 거래는 주주명부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공개된다.

신 교수는 “주주총회에서 위임장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새도우보팅의 폐지로 주주명부의 파악이 어렵고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률이 낮은 문제는 블록체인을 통한 주주명부의 작성

과 공개에 전자투표의 활성화가 더해진다면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 이는 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무제표 등 기업 관련 정보가 블록체인을 통해 투자자들 사이에 공유된다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얻게 된다.

그는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영진과 주주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데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확한 기업 관련 정보가 주주를 포함한 기업의 이해당사자 사이에 공유될 수 있다면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해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를 현저히 해결할 수 있다” 설명했다.

심형섭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경영학부 교수도 ‘블록체인과 기업지배구조’란 주제 연구를 통해 ‘블록체인’이 기업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뉴욕대 데이비드 여맥 교수의 연구를 소개하며 블록체인이 기업 지배구조에 가져다 줄 변화를 짚었다.

여맥 교수는 ▲회계 투명성 증가 및 기업의 공시 부담 감소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투명성 증가 ▲기업의 자금 조달 ▲주주총회에서 투표에 의한 의사 결정 기능의 개선 ▲경영자의 자기 이해 충족행동 감소 ▲인수합병과 같은 기업의 경영권 시장의 영향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벌처펀드 등 경영권 방어에도

‘벌처펀드(vulture fund)’로부터도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다. 죽은 동물을 먹이로 삼는 대머리독수리를 뜻하는 ‘벌처’라는 말에서 나온 이 펀드는 이미 삼성물산과 엘리트매니지먼트의 주주총회 대결로 한국에서 한껏 주목받았다

주주행동주의의 특히 헤지펀드의 주주행동주의는 대상 기업의 일정 지분을 매입한 후 이익을 기반으로 다양한 경영 관련 압력을 통해 이익 실현을 시도한다. 이때 5% 룰을 회피하기 위해 지분을 분산해

매입한 후 경영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규모에 도달하게 되면 본격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신 교수는 “블록체인을 통한 주식 거래가 이뤄진다면 경영진과 다른 주주들은 이러한 헤지펀드와 기관투자자들의 지분변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들에 대한 대비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도 있다. 블록체인은 주주들의 지분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주주의 존재와 지분 규모가 다른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와 연합경영진에 압력을 가하거나 교체하는데 따른 제약이 줄어든다. 즉, 블록체인은 소액주주의 무임승차 문제를 완화해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외부 통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 블록체인을 활용한 주식의 거래는 경영진의 지분 보유 규모와 변화를 실시간으로 기존 주주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개된다. 이에 따라 경영진이 내부거래(Insider trading)를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여지는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가상화폐에 ‘베팅’하는 중소 게임사… 사행성 우려도

상장·채굴·투자 등 가상화폐 기웃 게임머니 연동해 산업 활성화 기대 자칫 카지노 등으로 악용 목소리도 대형게임사는 넥슨뿐, 희비 엇갈려

신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게임업체가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상화폐에 빠졌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채굴에 돌입하는 등 방식도 다양하다.

향후에는 가상화폐가 게임 내의 게임머니와 연동해 게임 산업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상화폐가 사행성 게임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견·중소 게임사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뛰어들며 신규 매출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빠르게 가상현실(V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에서 시민이 시세전광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R) 분야에 진출한 엔게임은 이달 내 자회사를 설립해 채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채굴을 위한 기기장비를 준비하고 있다. 자회사를 설립해 채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면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게임 내 활동 정보와 보상, 마켓 등에 적용할 블록체인 개발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엔게임은 지난해 9월 비트코인 전문 업체 코인숲과 가상화폐 페이도 등과 사업협력(MOU)을 맺으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안목을 키운 바 있다. 엔게임 관계자는 “MOU로 전문 기업들 눈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시장의 가능성

을 살펴봤다”며 “회사 단독으로 가상화폐·블록체인 등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자회사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굴 사업 관련 자회사가 설립되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파티게임즈는 지난해 비엔엠홀딩스와 약 3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ICO(Initial Coin Offering) 대형 계약을 미덥스플러스와 체결하며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했다. 게임 내 아이템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신규 가상화폐(게임코인)를 발행할 목적이다. 파티게임즈는 ICO를 통해 발행될 신규 가상화폐를 국내외 주요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시킬 계획이다.

한빛소프트는 지난 10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분 25%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사업 진출을 위한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투자에 나섰다.

이처럼 중견·중소 게임사가 가상화폐·블록체인이라는 시장에 발을 들이는 이유는 양극화된 게임 시장 구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 게임 시장은 ‘3N’으로 지칭되는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가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레드오션에서 중견·중소 게임사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가상화폐·블록체인 기술을 택한 셈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현재 게임 시장은 대규모 마케팅이 가능한 3N 외에는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견·중소 게임사의 경우 이 같은 어려움을 가상화폐와 같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유독 중견·중소 게임사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형 게임사 중 가상화폐 사업에 표면적으로 나선 업체는 넥슨뿐이다. 넥슨은 지난해 9월 넥슨 지주회사인 NXC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을 인수하며 업계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게임 업계에 부는 가상화폐 바람이 자칫 카지노 게임 등 사행성 게임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시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모든 정보·가치 교환… “인터넷 자체 대체할 수도”

>> 1면 ‘코인이야기’서 계속

오픈형 블록체인 데이터 분산 저장

이 네트워크는 무한한 확장이 가능하며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정합성과 보안성도 강화된다. 금융 외에도 제 3자의 중개를 거쳐야 했던 모든 정보·가치 교환을 대체할 수 있다는 확장성도 장점이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그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기에 중계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오픈에스

이러한 블록체인은 다시 폐쇄형 블록체인과 오픈형 블록체인으로 나뉜다. 폐쇄형 블록체인은 특정한 구성원들만 참여할 수 있고, 오픈형 블록체인은 세계 어

디에서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다만 폐쇄형 블록체인의 경우 DB 방식에 비해 큰 효율성을 갖지 못하기에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오픈형으로 구현된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가상화폐다. 오픈형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동시에 누구나 참여 가능하기에 참여자들은 본인과 관련 없는 데이터까지 보관해야 한다. 본인에게는 쓸모가 없는 다량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은 개인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참여자들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데이터만 보관하려 할 경우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무너지게 된다. P2P 형식으로 파일을 공유할 때 파일을 다운받으려는 사람만 있고 올리는 사람이 없다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때문에 블록체인 참여자들은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일종의 보상으로 해당 블록체인의 가상화폐를 지급받는다. 블록체인 종류에 따라 보안성 강화에 기여하는 ‘채굴’ 행위 또는 보다 많은 데이터를 보관하는 역할 등 다양한 기준으로 가상화폐를 제공한다. 블록체인을 개발한 이들 역시 동기부여를 위해 가상화폐를 받게 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블록체인이 동하는 순간 개발자들도 블록체인에 대해 사실상 관리 권한을 잃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

결국 가상화폐는 오픈형 블록체인을 개발·유지·보수하는 유인·보상으로 역할

을 하는 셈이다.

이러한 가상화폐는 현재 투자 열기가 과열돼 투기 광풍이 불고 있고 ‘도박’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일종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할 권리’의 고유 가치도 갖는다. 가상화폐가 속한 블록체인이 비대해지고 미래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살아남는다면 해당 블록체인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분으로 활용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도박과 동일하게 보는 시각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현재 난립하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대부분은 1~2년 내에 사라질 것”이라면서도 “이후까지 살아남는 블록체인과 그 가상화폐는 현재보다 더욱 큰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뚝을 틈 없는 ‘철통보안’ 경쟁력

가상화폐 거래소

③ 보안사고 없는 ‘코인원’

모바일 앱 오픈된 규모 증가 예상
탱글 ‘아이오타’ 국내 유일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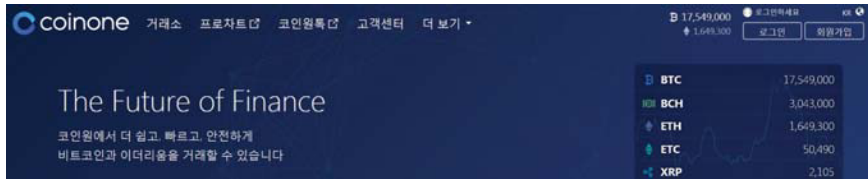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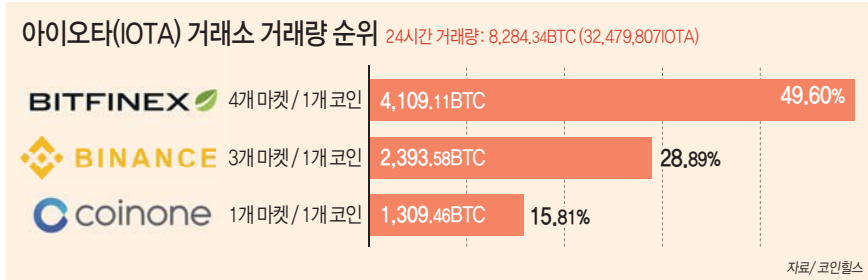
코인원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까지 보안 사고가 없었다는 점이다. 아직 가상화폐는 물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규정이나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안 수준과 거래안정성은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 요소다.

16일 코인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하루 거래규모는 8000억~9000억원 안팎이다. 지난해 12월 5000억~7000억원 수준이던 것이 평균 40% 가량 늘었다.

가상화폐 정보제공 사이트인 코인월스 집계에 따르면 거래규모로는 업비트, 빗썸에 이은 국내 3위며, 세계 시장에서는 14위권이다.

모바일 앱이 오픈되면 거래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인원은 현재 모바일 앱의 베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오픈은 오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코인원은 일단 보안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빠른 거래 뿐 아니라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이버배상책임 보증을 체결해 거래 전 단계에서 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지원받을 수



코인원 홈페이지 캡처 화면.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원은 지난해 5월부터 상장하는 코인에 대한 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다. 명세서는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당 가상화폐의 개요와 현황을 담고 있다. 가격 급등락에 따른 피해를 막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비트코인 캐시와 리플, 퀀텀 등 6개 코인에 대해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해 5월 이전에 상장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도 명세서를 준비 중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명세서는 리서치팀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해당 가상화폐의 비즈니스, 인지도, 시장성, 기술적 검토 등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원에는 9개 코인이 상장되어 있

다. 이 중 아이오타(IOTA)는 국내에서는 코인원에만 상장된 상황이다.

아이오타는 사물인터넷에 특화된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로 블록체인이 아닌 탱글(블록체인을 발전시켜 만든 새로운 구조의 플랫폼)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코인원은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와 함께 블록체인 해외송금 서비스인 ‘크로스(Cross)’를 운영하고 있다. 데일리금융그룹의 100% 자회사로 출발했지만 데일리금융그룹이 지난해 8월 옐로모바일로 넘어가면서 코인원의 대주주는 사실상 옐로모바일이라고 보면 된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옐로모바일은 데일리금융그룹을 통해 코인원 지분 75%를 보유 중이다.

/안성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靑 행정관 작성한 ‘삼성현안’ 실제로 해결된건 거의 없어

이재용 재판 돌아보기

③ 대통령 독대

개별 현안, 삼성물산 합병만 성사
500만주 처분... 공정위 압박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에 앞서 청와대 행정관들이 작성한 ‘대통령 말씀 참고자료’를 받아봤다. 이 참고자료에는 삼성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현안이 기록됐다. 대통령이 기업 오너와 독대할 때 기업의 현황을 알려주는 이 자료는 독대에 나서는 기업에서 자료를 정리하기도 하지만 삼성의 경우 청와대에서 직접 인터넷 기사를 참고하며 작성한 자료였다.

해당 자료에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그에 관한 엘리엇 사태, 지분구조 등의 정보가 담겼다. 특검은 이 자료를 기반으로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이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이 부회장에게 언급했고 이를 추진했다고 추측했다. 또한 이러한 현안들은 모두 이 부회장의 지분을 늘려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성사된 개별 현안, 삼성물산 합병이 유일
다양했던 삼성의 현안 가운데 유일하게 성사된 것은 삼성물산 합병이다. 2015년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계획을 공시했다. 당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라는 비율이 부당하다며 합병에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주주총회에서 합병 가부를 표결하게 됐고 삼성과 엘리엇은 각기 찬반세력 규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은 9.92%였던 지분을 11.61%까지 급격히 늘리며 표 확보에 나섰다. 국민연금은 의결권전문위원회 대신 기금운용본부 내부에서 찬성을 결정했다. 특검은 청와대가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해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전문위의 전문성이 떨어져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가 회의감을 느꼈기 때문이란 게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특검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재판에서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전 SK(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시민단체와 학계로 구성된 전문위는 각자 본인들 얘기만 했고 공단에서 준비한 분석 자료는 보지도 않았다”며 “참관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전문위가 이런 식으로 열리냐’며 참담해 했을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연락을 취한 것은 맞지만,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찬반 여부를 빨리 가려달라는 것과 전문위를 거치지 않고 결정을 내리면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이 전부였다. 또한 합병에 반대하는 외국인 주주들은 합병이 결정된 후에도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 손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국민연금 전문위가 합병 비율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지난 1심 재판에서 해당 주장의 근거가 된 보고서가 오류투성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처음 논의된 순환출자, 격론 끝 결정
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에 변동이 생겼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탓에 삼성그룹은 일정 주식을 처분해 순환출자 고리를 정리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던 구 제일모직 주식과 구 삼성물산 주식을 합친 신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후 내부 토론을 거쳐 500만주로 반복했다.

삼성물산 합병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공정위가 인식한 첫 신규 순환출자 사례였다.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해석에 따라서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될 수도, 기존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다.

공정위 소속이면서 청와대에 파견된 한 행정관은 “결국 삼성SDI가 원손에 400만주, 오른손에 500만주를 들고 있다. 이게 900만주로 합쳐졌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실질을 생각하면 400만주나 500만주만 처분해야 한다. 형식만 따져 900만주 전부를 빼앗는 것은 공정거래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단은 공정위가 내리는 것이기에 당시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기자 sesung@

또 ‘거래소 폐쇄’ 발언... 비트코인, 올 최저가 급락

반복되는 ‘거래소 폐쇄’ 발언에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급락했다.

16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2시 59분 1731만원까지 급락했다. 올해 최고점인 지난 6월 2661만6000원 대비 34.9% 하락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에만 해도 1900만원 중반대에 거래됐지만 정부 관계자의 경고

가 다시 한 번 나오면서 매물이 쏟아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에 출연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부처 간 긴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비이성적 투기가 많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과세를 한다든지 실명제를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경고에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부터 거래소 폐쇄 발언이 나올 때마다 급등락을 오가며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강경한 입장을 밝힌 뒤에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바 있다.

/안성미 기자

주택연금 가입자 5만명 돌파... 출시 10년 5개월만

주택연금 신규가입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07년 7월 상품 출시 이후 10년 5개월여 만이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을 일컫는다.

16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산시 남구에 거주하는 옥치동(73), 김명순(70) 부부의 주택연금 가입 신청 건이 최종 승인됐다. 이들은 주택연금 5만번째 가입자로 선정됐다.

주택연금 상품에 5만번째로 가입한 옥씨 부부는 “내 집에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며 사망 시 재산이 남으면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주택연금이 가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는 1만38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07년 515명 대비 약 20배가 넘는 수준이다. 주택연금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



공사는 16일 5만번째 가입자인 옥치동, 김명순 씨 부부를 부산시 문현금융로에 위치한 본사에 초청하여 감사를 표시하고 축하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이정환 주금공 사장, 옥치동 씨, 김명순 씨. /주금공

지 누적 가입건수는 4만9815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주택연금 출시 이후 최초로 울릉도에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나왔다. 1억3600만원짜리 단독주택을 소유한 78세 어르신은 지난해 11월 주택연금이 가입하여 매월 68만원(전후후박형)을 받게 됐다.

국내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연령은 평균

71.9세로, 2억8700만원의 주택을 소유했다. 가입 후에는 평균 98만9000원의 월지급금을 받았다. 이는 60세 이상 가구 평균 근로소득인 127만원의 77%에 해당한다.

공사 관계자는 “2018년에도 고령층 소득-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상품 출시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P2P 취급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 의무화

앞으로 개인간(P2P)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록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 2일부터 P2P 연계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한다고 16일 밝혔다.

P2P 대출은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수요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016년부터 활성화되면서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P2P 누적대출액은 2015년 말 373억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2조1744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대부업 법규 개정 이전부터 P2P 대출을 취급하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28일까지 등록 유예기간(6개월)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기존 P2P 연계 대부업자는 해당 기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3월 2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불법 영업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P2P 연계 대부업자의 등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미 기자

현대상선, 현대그룹 상대 배임소송 왜?

로지스틱스 부당 매각 입증 통해 '롯데와의 소송' 포석

로지스틱스 매각 때 부당계약 발견 160억원 지급 피소 위기 탈출구?

현대상선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5명을 배임혐의로 고소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있는 가운데 현대상선이 롯데그룹과의 소송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상선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 부당한 계약 체결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며 "현대상선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공동 매각하는 과정에서 15건의 부당 계약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장 전무는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할 때 피고소인들은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이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현 회장 등을 지목해 배임 혐의를 묻는 것과 관련해선 "당시 경영권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소를 진행한 것"이며



16일 현대그룹본사 기자간담회에서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이 기자들에게 질의를 받고 있다. /유재희 인턴기자

"현대상선에 기획본부가 있기는 하나 주요 의사결정은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실이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또 "불합리 계약성사에 영향을 준 배후인물은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대상선이 현 회장을 고소하고 나선 것이 차후 롯데와의 소송문제를 적극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대상선이 현 회장의 배임죄와 계약체결의 부당함을 증명해 롯데와의 계

약을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 현정은 회장 재직 당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현대상선이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매년 16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롯데 측에서 계약 불이행을 근거로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상선이 부당조항으로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 사업 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로지스틱스)만 이용해야 하고, 해외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할 경우 현대상선이 미달 금액만큼을 롯데글로벌로지스에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 롯데와의 계약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상선의 행보를 두고 현대그룹과 경영상 관계가 사라진 만큼 현 전 회장과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따른다. 또, 새로운 사장이 취임한 만큼 현대상선이 지난해 회사 로고를 'HYUNDAI(현대)'가 아닌 'HMM'으로 변경하는 등 계열 분리 후 향후 회사의 재건에 더욱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측은 현 회장이 각별히 애정을 쏟았던 현대상선으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16년 12월 현대상선이 경영 위기의 봉착했을 당시 자구안의 일환으로 현정은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당시 현 회장의 사재출연은 현대상선의 경영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여론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은 당시 죽어가는 현대상선을 살리기 위해 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배임 관련 기자회견에서 현정은 회장 이름만 실명으로 공개하고 나머지 피고소인은 공개도 안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당시 현대그룹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하는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준수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으며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다. 피고소인 당사자들은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의 승패는 현대상선이 현정은 회장 등 5명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배임 및 책임을 묻기 위한 명확한 근거 또는 증거에 달렸다. 또 혐의 입증에 위해 현대상선의 대외비로 분류되는 문서 등을 검찰 등에 공개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현대상선과 현대그룹 간 소송이 긴 소모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정은미 기자·양성호 기자·유재희 인턴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문턱 낮아진다

치료 이력 있어도 가입 가능해져 과도한 보험료 보완장치도 마련

#. 3년 전부터 척추측만증으로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 A씨(45세)는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거절됐다.
#. 갑상선 항진증약을 복용하는 B씨(55세)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약 복용을 이유로 가입이 거절됐다.

앞으로 위 사례의 A씨와 B씨 모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 당국은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의 실손의료보험 문호를 확대하고,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 금융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지난 1년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약 3300만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상품'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적 안전망이다. 그러나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은 투자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지금은 완치된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했다.

이 상품은 기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심사항목을 18개에서 6개로 줄였다. 기존엔 위험한 취미 여부, 음주·흡연 여부 등도 따졌으나 앞으로 병력 관련 3개 사항, 직업, 운전 여부, 월 소득만 본다.

치료 이력 심사 대상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5년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환도 10개에서 1개(암)로 축소한다. 암은 의학적으로도 5년간 관찰을 거쳐 완치 판정하고 전이·합병증 등이 광범위해 부담되거나 보험료 할증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포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가입 심사항목·보장에서 투자 여부도 제외된다. 기존엔 간단한 투자만 하고 있는 경우 만성질환자도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해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57.4%

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투약 중이거나 가입이 저조했다.

새롭게 만든 상품에선 투약 여부를 가입심사 항목 및 보장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우 만성질환자가 유병력자 실손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만성질환자 등이 단순 처방을 위해 진료를 받는 것은 유병력자 실손 가입 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보장범위는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과 동일하게 했다. 다만 3개 비급여 특약인 ▲수술치료·체외충격파·중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은 제외했다.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30%로 설정했다.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해 무분별한 의료이용 등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막았다.

다만 노후 실손의료보험에 도입된 우선공제 방식은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월 보험료는 50세 기준으로 남자 3만4230원, 여자 4만8920원이 될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추정했다. 유병력자 실손은 가입심사가 완화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자기부담률 30%, 최소 자기부담금 설정 등 보완장치를 통해 보험료 상승 요인을 30.5% 축소했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3년마다 유병력자 통계 축적,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경과 등을 반영해 보장 범위·한도 등 상품구조를 변경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상품 출시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4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실손의료보험 상품 간 연계방안(단체·개인 실손, 일반·노후 실손)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재가공한 유튜브 영상도 '저작권 침해'

예능장면들 따라 그려넣어 올려 저작권 중 복제권·전송권 침해 침해자가 소송해도 비용 더 들어

#. "우리 정 과장(정준하)의 아이 이름을 지어봅시다... 박명수 씨, 이름에 '자'를 붙이면 어떡합니까(웃음)."

김모(33)씨는 최근 유튜브(YouTube)에서 3분짜리 분량의 MBC '무한도전' 명장면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시청한 동영상은 '마스터발그림'이라는 게시자가 본방송의 화면을 연속 재생 그림으로 대체한 '[무한도전] 정과장 아들 작명하기'다. 지난해 12월 28일 업로드 된 이 영상은 16일 오전 조회수 65만7053회를 기록했다. 김씨는 "본래 영상을 그림판으로 그린 장면마다 각 캐릭터의 특징을 강조해서 본방송의 재미를 배가시킨다"고 말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 편집 동영상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래 화면을 그림으로 대체 '인기'

기존 예능 프로그램의 주요 장면을 1~2분 단위로 잘라내 공유하는 방식은 익히 알려져 있다. 유튜브가 지난 2008년 도입한 콘텐츠 검증 기술(Content ID·CID)을 피하기 위해 본래 화면보다 영상 크기를 줄이고 남은 공간에 움직이는 이미지(눈 내리는 모습 등)를 넣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

최근에는 이런 단계를 넘어 해당 장면을 윈도우즈(Windows) '그림판' 앱으로 그려 넣는 방법이 인기를 얻고 있다.

마스터발그림처럼 기존 예능 프로그램 화면을 그림으로 대체하는 '총명명'계정의 동영상도 마찬가지다. 이 계정은 예능 프로그램 '강식당'에서 강호동이 등장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대체했다. 마스터발그림과 다른 부분은, 게시자 본인을 상징하는 '궁'에 캐릭터를 영상 중간에 등장 시킨다는 점이다. 계



MBC '무한도전'의 주요 내용의 화면을 그림으로 따라 그려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브 '마스터발그림'. /유튜브 화면 캡처

시자 본인 것으로 추정되는 웃음소리도 넣었다.

앞서 대중에 널리 알려진 사례는 '장삿썩'이다. 이 계정은 수십년 전 발표된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에서 자신의 목소리 연기를 넣어, 본래 내용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드는 점이 웃음 유발 요소다. 구독자 수 68만2000여명인 장삿썩 영상의 조회수는 1억7711만9600여회에 이른다. 장삿썩은 이 같은 인기로 힘입어 지난해 예능 'SNL(Saturday Night Live Korea)' 속 애니메이션에 목소리로 출연하기도 했다.

◆손으로 베껴도 '저작권 침해'

법조계는 이같은 콘텐츠 상당 부분에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해당 영상물 대부분은 저작권 가운데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로 보인다"며 "아주 일시적으로 사용했다면,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 효력이 제한돼 침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제권은 복사와 녹음, 녹화 등으로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다.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의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복제하면 복제권 침해가 된다. 기계적인 방법이 아닌 수기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

전송권은 인터넷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데 대한 권리다.

저작권법 제35조에 따르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정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2009년 한 어린이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는 장면이 부모의 블로그에 게시돼 복제·전송 중단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내용이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지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해당 영상을 이용해 광고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 될 여지가 있다. 마스터발그림과 총명명, 장삿썩의 게시물에는 광고가 포함돼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작권자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자가 저작권 침해로 얻는 이익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더 나온다"며 "일반 민사소송도 원고가 얻고자 하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포기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 비용과 시간 낭비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범준 기자 jcker@

신입사원 만난 최태원 “패기·딴체인지로 뉴SK 만들자”

(SK 회장)

39년째 이어온 ‘신입사원과의 대화’ 공유가치 없으면 보유가치도 없어 혁신적인 ‘공유 인프라’ 실천 당부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15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청운체육관에서 열린 2018년 그룹 신입사원과의 대화에서 패기와 딴체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SK그룹

최태원 SK 회장이 2018년 그룹 신입사원들에게 “패기와 틀을 깨는 사고로 뉴(New) SK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16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15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청운체육관에서 열린 ‘신입사원과의 대화’에서 “기존 기준과 규칙으로 굴러가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SK그룹의 신입사원과의 대화는 1979년 고(故) 최중현 선대회장이 신입사원들에게 그룹의 경영 철학과 비전 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시작한 뒤 올해로 39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최 회장은 “새 시대의 인재를 패기와

함께 삶과 일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기업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세상의 행복을 더 키우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K의 ‘딴체인지’를 위한 ‘사회적 가치’와 ‘공유인프라’라는 화두를 짚어주고 나갈 사실상의 첫 세대”라며 소망

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생명력을 가져야 하는데, ‘공유 인프라’와 같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것도 이 때”라고 덧붙였다.

공유 인프라 범위 등과 대한 한 신입사원의 질문에 최 회장은 “우리 인프라를 외부와 공유하면 손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그러나 공유할 가치가 없다면 보유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으로 공유 인프라 전략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최 회장은 최근 그룹 신년회를 통해 올해를 공유인프라 등을 통한 ‘딴체인지’로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경제·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뉴 SK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조대식 SK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 박성욱 글로벌 성장위원회(SK하이닉스 부회

장), 박정호 ICT위원장(SK텔레콤 사장), 김준 커뮤니케이션 위원장(SK이노베이션 사장), 서진우 인재육성위원장, 최광철 사회공헌위원장과 주요 관계사 사장 등 경영진 20여명과 신입사원 1600여명이 참석했다.

조대식 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은 신입사원들에게 “뉴 SK를 선언한 첫 해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여러분들은 우리 그룹의 소중한 자원”이라며 “자신감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회사생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최 회장과 주요 관계사 사장들이 신입사원들과 즉석에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토크 콘서트’ 형태로 열렸다. 최 회장은 패널로 참석한 신입사원들과 기념 ‘셀카’를 찍는 등 격의 없는 소통 행보를 보였다. SK가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신입사원과의 대화는 SK하이닉스에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metroseoul.co.kr

한화첨단소재, 中 자동차시장 공략 속도

세번째 충칭공장 본격 가동 현대차에 경량화부품 공급



한화첨단소재 충칭공장 전경. /한화첨단소재

한화첨단소재가 현대자동차에 경량화 부품을 납품한다.

한화첨단소재는 중국 충칭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용 경량화 부품이 올해 초 현대자동차 충칭공장에 공급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한화첨단소재 충칭공장은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 중국에 위치한 세 번째 생산법인이다. 4만5000㎡ 부지에 8620㎡ 규모로 지난해 8월 완공된 이후 4개월에 걸친 시험생산을 마치고 최근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충칭공장은 연간 40만대 분량의 완성차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주요 제품은 자동차용 범퍼빔과 언더커버, 스티프너, EPP 성형품 등이다. 주요 고객은 북경현대차와 장안포드, 중국 현지

기업인 장안기차와 길리기차 등이다. 회사 관계자는 “충칭공장은 베이징, 상하이 공장과 함께 중국 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말했다. 자동차용 부품은 한화첨단소재 전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한다. 또한 한화첨단소재의 8개 해외법인 중 3개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 있다.

한화첨단소재는 중국 전기차 시장 확대에 발맞춰 GM, BMW 등을 상대로 전기차용 배터리케이스 공급 확대를 위한 수주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달 한화첨단소재 베이징 법인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한 바 있다. /오세성 기자 sesung@

‘1가구 1건조기 시대’ 임박?

LG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돌풍

이전 모델보다 판매량 3배 높아 일시적으로 물량 부족 현상까지



LG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트롬 건조기(사진)의 4주간 판매량이 직전 모델의 출시 초기 판매량 대비 3배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LG전자가 최근 2주 동안 판매한 전체 건조기 가운데 3분의 2가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의 신제품이다. 일부 유통에서는 구매자가 몰리며 일시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전자는 신제품의 낮은 전기료, 짧은 건조시간 등이 건조기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세탁물 5kg을 표준코스로 건조하는 경우 전기료는 ‘에너지모드’ 기준 117원에 불과하다. 또 ‘스피드모드’를 이용하면 80분대에 건조가 끝난다. ‘살균코스’는 황색 포도상구균, 녹농균, 폐렴간균 등 유해 세균들을 99.99% 없애준다.

LG전자가 신제품에 적용한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는 건조기의 핵심 부품인 컴프레서에서 냉매를 압축하는 장치인 실린더가 2개로 기존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

에 비해 한 번에 압축할 수 있는 냉매량이 15%까지 늘어나 효율과 성능이 높다. 건조기에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을 적용한 것은 국내 업체 가운데 LG전자가 유일하다.

또한 제품에 표시되는 예상 건조시간의 정확도를 높인 ‘스마트 타이머’, 고객이 제품을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 문이 열리는 방향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양방향 도어’, 콘덴서 자동세척 LED 알림 등 신제품만의 차별화된 편의 기능들도 고객들로부터 호평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60만 대 수준이던 국내 건조기 시장이 올해 70% 가까이 성장해 100만 대를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G전자는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의 트롬 건조기가 1가구 1건조기 시대를 더욱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미 기자



현대로템이 제작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탑승교. /현대로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탑승교 설치 완료

현대로템 488억 사업, 총 64대 제작 수차례 점검, 각종 안전시스템 적용

현대로템은 오는 18일부터 정식 개장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사용되는 탑승교가 1년 여의 현장 설치와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용을 앞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탑승교는 공항에서 여객터미널과 항공기를 연결해 승객이 편리하게 타고 내리

도록 하는 터널형 이동식 통로다.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먼지와 악천후로부터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사용되는 총 64대의 탑승교는 전부 현대로템이 제작했으며 지난 2014년 약 488억원 규모로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수주한 사업이다. 현대로템은 64대의 탑승교 모두 당진공장에서 생산해 2017년 9월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를 마무리하고 현재 마무리 보완 작업 중에 있다.

현대로템은 탑승교를 위한 전용 도장 라인을 운영해 도장품질을 확보했으며 전용 지그(제작·가공을 위한 보조용 기구)와 로봇용접기를 이용해 균일한 고품질의 제품을 탄생시켰다. 또 탑승교의 조기 품질 안정화를 위해 운용 전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수 차례에 걸쳐 품질점검을 실시했으며 운용 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탑승교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전과 유지보수 교육을 실시해 각종 운용상의 문제점과 안전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품질관리와 성실시공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적 개항에 일조한 점을 인정 받아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한 바 있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탑승교의 외부 유리는 방화성능이 개선된 접합강화유리를 적용해 항공기 화재시 피난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충돌방지시스템을 적용해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항공기와 탑승교가 접현하거나 분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한편 현대로템은 지난 1986년 김포공항 탑승교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탑승교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양성근 기자 ysw@

니콘이미징코리아 소비자 따라 강남으로 본사 이전

소비자와 소통 확대 등 새단장

니콘이미징코리아가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를 위해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본사를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센터로 이전한다고 16일 밝혔다.

니콘이미징코리아는 이번 본사 이동을 통해 소비자와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객지원센터는 새롭게 재단장하고 니콘 쇼룸을 신설해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새롭게 선보이는 쇼룸은 니콘의 다양한 카메라와 렌즈, 액세서리 제품 등을 한 곳에 보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

로 구성됐다. 신인 작가, 일반인들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니콘 포토스퀘어도 운영해 사진 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니콘 스쿨 교육장도 전국 7곳에서 8곳으로 확장한다. 기존 서울에서 운영했던 대한상공회의소 교육장은 폐쇄하는 대신 강남 포스코센터(14층)와 서울역 회의실(4층)에 교육장을 마련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진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키타바타 히데유키 니콘이미징코리아 대표이사는 “올해는 니콘의 브랜드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소비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기자

“올해 1.5兆 이상증자 발판, 내년 매출 7兆 회복 자신”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

발주여건 개선 전망, 시장전망 밝아
서아프리카 현지 제작장 경쟁 유리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이 올해 수주 목표 달성과 2019년 흑자 전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남준우 사장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19년에는 매출이 7조원 수준으로 회복되고 흑자 전환을 이룰 것”이라며 “1조 5000억원의 이상증자도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삼성중공업은 2015~2016년 선박 발주량 급감에 따른 수주절벽의 여파로 2018년 연 매출이 5조1000억원 규모로 감소하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고, 영업이익도 약 24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남 사장은 “2016년은 지금보다 상황이 어려웠지만 문제없이 진행됐다. 요즘은 유가 상승에 힘입어 발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고 시장 전망도 밝다”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 근접하고 오일 메이저 기업의 손익분기점도 50달러로 안정화되고 있다. 해외 관계자들도 2020년부터 적용되는 환경규제로 신규 선박 발주를 늘릴 것으로 보여 전체 조선 업황 개선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의 최대주인 삼성전자의 이상증자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대주주이지만 그 회사의 계획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참여를 요구할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삼성중공업은 유가 하락기인 2015년 이후에도 대형 해양플랜트를 지

속적으로 수주해 온 유일한 조선소”라며 “해양플랜트 발주가 예정돼 북해, 서아프리카, 호주 등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중공업은 북해 지역에서만 2000년 이후 발주된 23개 프로젝트 중 10개를 수주했다. 국내 3사 중 유일하게 서아프리카 지역에 현지 제작장을 보유하고 있어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삼성중공업은 프로젝트 수주 외에 회사 내부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임원·간부들만 참여하고 있는 임금 반납도 사원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작년 연말에는 구조조정을 통해 임원 30% 축소 및 조직도 87개에서 67개로 축소한 바 있다.

남 사장은 “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전사원들의 임금의 10% 반납을 예상하며

희망되지는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는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며 “임금 상승의 경우는 회사 상황이 좋아지는 2018년까지는 미루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3년 치를 한 번에 협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남 사장은 “조선 쪽 펀더멘탈(기초조건)은 바뀐 게 없는데 채권단 자금 회수가 심해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 RG(환급보증) 발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 계약이 취소되거나 미뤄진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그는 “외부 여건이 개선된다고 해서 안주하지 않고 올해도 휴직, 임금 반납 등 상황에 기반을 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위기 극복 의지를 보였다.

/임현태 기자 ihj@metroseoul.co.kr

“KT 농업용 실생활 드론, 임자만났네!”

KT, 임자도에 드론교육장 오픈

KT는 16일 오후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에서 ‘KT 기가 아일랜드 드론 교육장’을 열고 임자도민을 비롯한 신안군민을 위한 드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자도 마을기업인 ‘임자만났네’ 체험센터에서 열린 오픈식에는 KT 지속가능경영담당 이선주 상무, 신안군의회 주윤덕 의원, 신안군 복지재단 정인호 이사, 나태주 임자만났네, 문희숙 임자초등학교장, 남정수 임자노인회장, 정창일 임자만났네 위원장 등 관계자와 임자도 주민들이 참석했다.

KT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임자도 주민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실생활에 필요한 드론 교육을 위한 교육장을 준비해 왔다. 임자만났네 체험센터 3층 옥상에 마련된 드론 교육장은 이론 학습장, 실기 체

험장, 시뮬레이션장 등의 시설을 갖췄다.

임자도는 주민의 약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와 부족한 일손 부족 때문에 농약 살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주민들은 최근 무인 헬기로 방제하고 있지만 비싼 운용 비용과 헬기 프로펠러가 발생시키는 소음(와류) 때문에 일부 농작물 손상이 발생하는 등 고민이 많았다. 이와 비교할 때 농업용 드론의 가격은 무인헬기의 10~25% 수준이고, 연간 운용비가 무인헬기의 10% 정도에 불과해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T 드론 교육장에서는 이론, 조종 실습은 물론 향후 드론 자격 검정 및 농업용 드론 임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KT 드론 교육장은 농업용뿐만 아니라 일반인, 학생 대상의 일반 드론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가상화폐 하드웨어 지갑 양산

현대페이 ‘KASSE HK-1000’

현대페이가 국내 최초로 가상화폐 하드웨어 지갑(콜드 스토리지) ‘KASSE HK-1000’을 양산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6일 현대페이에 따르면 이 회사는 가상화폐 하드웨어 지갑을 지난해 12월 선보였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는 온라인에 보관하는 것뿐 아니라 하드디스크(HDD), USB 등 오프라인 저장장치에도 보관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 보관할 경우 해킹 피해로부터 안전하지만 휴대성과 보안성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현대페이의 가상화폐 하드웨어 지갑은 국내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받아 최고 수준의 보안성은 물론 편리한 기능으로 높은 소비자 만족을 이끌어냈다. 지난 12월 생산한 1차 양산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2차 추가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현대페이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의 해킹, 분실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보다 안전한 장치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자율규제안은 가상화폐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하도록 한다. 현대페이의 KASSE HK-1000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페이가 개발한 가상화폐 하드웨어 지갑 ‘KASSE HK-1000’. /현대페이

다. 이어 “KASSE HK-1000의 추가 생산 및 차기 제품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KASSE HK-1000은 최고 수준의 보안 칩(CC EAL5)을 적용한 블록체인의 하드웨어 지갑으로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등 8종의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다. 휴대성이 뛰어나고 분실했을 경우 동일한 장치를 통해 손쉽게 복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관 중인 가상화폐 시세도 알려준다.

김병철 현대페이 대표는 “1월 중으로 리플, 퀀텀, 비트코인 골드 등을 추가하여 총 11종을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혜택 강화·통신비 할인... 이통3사 고객 유혹

SKT, 척척할인 가입 100만명 돌파 KT, 온·오프라인 면세점 쇼핑 마련 LGU+, 음식·쇼핑 새해맞이 이벤트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보편요금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통통신 3사가 자신들만의 통신비 할인 제후처를 확대하고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는 등 가입자들의 통신 요금 부담 낮추기에 나섰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의식한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SK텔레콤은 16일 제후처 이용 금액에 따라 매월 통신비를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척척할인’ 가입자가 출시 5개월만에 100만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해 신규 제후처로 이마트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척척할인은 SK텔레콤이 지난해 8월 말 11번가, SK에너지 등과 제후처 선보인 통신비 할인 서비스다. 별도 이용료가 없으며 결합할인, 신용카드 할인 등의 혜택과 중복해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SK텔레콤이 척척할인 가입 고객을 분석한 결과, 30~40대 비율이 45%로 절반에 달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통신비 부담 주체인 경우가 많은 30~40대가 통신비 할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척척할인 출시 이후 3개월만에 총 8만3751원의 통신비를 할인 받은 고객이 등장하는 등 ‘척척할인’이 통신비 부담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이번에 이마트가 척척할인 신규 제후처로 추가되면서 최대 할인 혜택(24개월 기준)이 기존 20만원에서 35만4800원으로 약 1.8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한 달 평균으로는 최대 1만4873원의 통신비가 할인되는 셈이다. KT는 이날 해외여행 고객을 위해



모델들이 SK텔레콤 '척척할인' 신규 제후처 추가 소식을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멤버십 혜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선 KT 멤버십으로 인천, 김포, 김해 공항 내 스카이하브 라운지를 본인 포함 최대 3인까지 30%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다. 또 해외여행 플랫폼인 ‘클룩(KLOOK)’과 제휴해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온·오프라인 신세계면세점에서 추가 쇼핑 혜택도 마련됐다. KT 멤버십 고객이라면 누구나 면세점 매장에서 200달러 구매 시 선불카드 1만원, 온라인 사이트에서 최대 9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KT는 하나투어와의 제휴를 강화해 멤버십 포인트로 해외 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5%(최대 5만원), 해외 호텔 예약은 10%(최대 10만원)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하와이, 세부 등 해외 주요 관광지 6곳에 위치한 T라운지(하나투어 운영)에 방문하면 트래블백, 무료 음료, 현지 여행상품 할인 등 혜택이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U+멤버십 고객 대상으로 외출, 쇼핑, 음식 등 인기 분야 혜택을 모은 ‘새해 맞이’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U+멤버십 고객은 서울랜드 입장 시 6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동반 2인도 40% 할인 혜택을 제공 받는다. 수목원 ‘제이든 가든’에서는 3500원 할인 받아 최대 2인까지 각 5000원에 입장할 수

다. ‘U+비디오포털’ 5000원 쿠폰도 24일까지 선착순 10만명에게 제공한다.

해외 여행객들을 위해 면세점 혜택도 제공된다. 신라아아파크면세점 이벤트 페이지에서 고객이 보유한 U+멤버십 포인트의 최대 20배 일반적립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갤러리아면세점에서는 1인 1회 온라인 적립금 3만원을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당일 63빌딩 내 ‘갤러리아 면세점 63’ 방문해 10달러 이상 구매 시 ‘63아트 전망대’ 무료 입장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미스터피자’ 신 메뉴인 ‘씨푸드빠에’ 1만원 쿠폰과 25일 하루 동안 미스터피자 40%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된다.

이처럼 이통통신사들이 멤버십 혜택 강화 등 여러가지 형태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보편요금제는 데이터 1GB·음성 200분을 2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현재 이통통신사가 3만원대에 제공하고 있는 요금제를 1만원 가량 낮추는 셈이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통신사의 매출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통통신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낮추기 위해 서비스 혜택 강화,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려는 모양새를 보인다. /김나인 기자 silkni@



KT 모델이 멤버십 글로벌 혜택을 소개하고 있다.



/KT LG유플러스의 멤버십 '새해 맞이'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마통·주담대 등 금리 줄줄이 인상... '대출절벽'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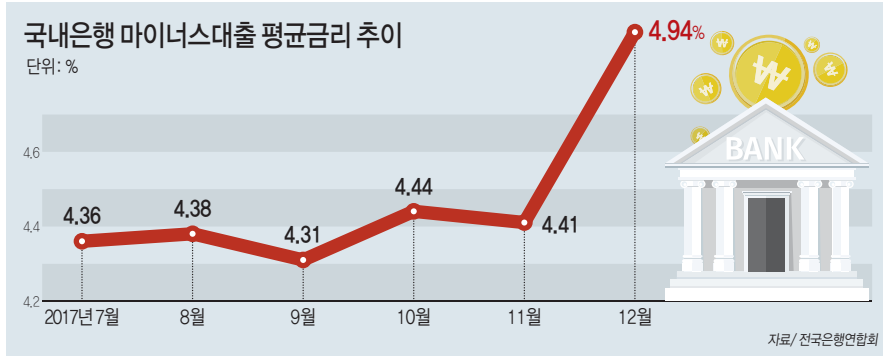
(마이너스통장·주택담보대출)

'생계 대출' 마통 금리 5%대
DSR도입시 추가대출 어려워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마이너스통장 금리도 뛰고 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에 진입한 가운데 마이너스대출 금리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다.

16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의 지난달 마이너스통장 평균 대출금리는 4.94%로 전월(4.41%) 대비 0.53%포인트 올랐다.

최근 6개월간 국내 은행들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 추이를 보면 월별 등락 폭이 0.02%~0.13%포인트에 그쳤으나,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1.25%→1.50%)하면서 한 달 만에 큰 폭



상승했다.

특히 지방은행에서 크게 올랐다. 지난해 12월 부산은행의 마이너스대출 평균 금리는 4.51%로 전월 대비 0.40%포인트 상승했다. 제주은행도 4.5%로 전월보다 0.22%포인트, DGB대구은행도 5.37%로 0.20%포인트 올랐다. 국민·하나·신한·우리 등 4대 시중은행만 봤을 때도 마이너스대출 금리는 11월 3.96%에서 12월

4.07%로 0.09%포인트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금리 경쟁력이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8월 3.25%에서 12월 3.32%, 3.52%, 3.75%, 3.94%로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가 올랐다. 케이뱅크는 10월 5.07%로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가 12월 4.09%까지 내린 상태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에 진입한 가운데, '생계 대출'로 불리는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까지 빠르게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삶도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후 코픽스가 넉 달째 상승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금리는 5%에 육박했다. 최근 은행연합회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1.77%에서 1.79%로 0.02%포인트, 잔액 기준은 1.66%에서 1.70%로 0.04%포인트 올리면서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도 줄줄이 올랐다. 여기에 마이너스통장 평균 대출금리가 6%를 넘보면서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더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씨티은행의 마이너스대출 평균 금리는 5.85%, 광주은행은 5.77%로 6%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여기에 올해 대출 상황 능력 심사 지표

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되면 서민들의 추가 대출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DSR은 기존 주담대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실제 부담하는 이자에 원금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결국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이자 부담액 및 대출 잔액이 클수록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엔 저금리 기조가 있어서 서민들이 주거비 마련 등의 목적으로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을 늘리곤 했다"면서도 "하지만 금리 상승 속도가 빠르고 DSR이 도입되면 추가 대출이 힘든 '대출 절벽'을 맞닥뜨리게 될 수 있어 적당히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하나금융, 김정태 등 차기 회장후보 확정

회추위, 7명 개별 인터뷰 진행
최범수·김한조 최종 3인 선정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가 김정태 현 회장(사진)을 포함해 3명으로 압축됐다.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김정태 현 회장과 최범수 전 KCB대표이사 사장, 김한조 전 외환은행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전날 인터뷰 참여에 응한 7명

의 후보를 상대로 자유 주제 발표 및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회추위는 인터뷰를 통해 후보자들의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 기업가 정신, 경력, 전문성, 글로벌 마인드 등 세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후보자들을 평가했다. 후보자들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심층적인 비교

우위 평가를 진행해 총 3인의 최종 후보군을 선정했다.

윤종남 회추위원장은 "이번 최종 후보군은 하나금융그룹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히 자격 있는 후보추천을 위해 다양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확정했다"며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유지해 국내 금융지주사 CEO 선발의 모범사례를 남기겠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오는 22일 최종 후보군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심층 면담 및 질의응답을 거쳐 차기 회장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채신화 기자



15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서 및 직원들을 격려하는 '2017 신한자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신한은행 위성호 은행장(앞줄 가운데)과 수상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2017 신한자원봉사대상

사회적 기업 '여럿이 함께' 매달 방문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2017 신한자원봉사대상'의 시상식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봉사활동 시간뿐만 아니라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을 자원봉사 활동으로 전파하는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그 결과 해외법인을 포함해 총 12개 부서와 3개 커뮤니티가 수상했다.

대상은 사회적 기업 '여럿이 함께'에

매달 정기적으로 방문해 사랑의 빵, 쿠키 만들기 봉사 활동에 참여한 분당중앙금융센터가 받았다. 분당중앙금융센터는 성남의 대표적인 지역행사로 손꼽히는 '자원봉사박람회'에 행사 도우미로 참가해 지역사회의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실천했다.

위성호 은행장은 "사회가 성숙할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조된다"며 "신한의 따뜻함을 전파하는 현장 실천자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우리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점 오픈

우리은행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영업점' 개점식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은행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영업점은 면세구역과 세관구역에 동시 입점해 예금·대출·외환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24시간 환전소를 포함해 4곳의 환전소를 운영한다.

영업점은 제2여객터미널 동쪽 지하1층, 환전소는 1층 입국장, 3층 출국장, 세

관구역과 면세구역 총 4곳에 설치한다. 영업점과 환전소는 오는 18일부터 운영한다.

우리은행 제2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 위치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영업점은 아트포트(ART+PORT)를 지향하는 인천공항의 디자인컨셉에 맞춰 아트피아노, 트릭아트, 폰투스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세련된 이미지의 고객창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상담공간으로



지난 15일 우리은행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영업점 직원들이 개점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은행

기존의 은행 디자인과 차별화된 아트뱅크(Art Bank)를 구현했다.

/채신화 기자

농협금융인상 대상 하민숙 과장 선정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5일 경기도 고양시 NH인재원에서 2017년 최고의 농협금융인에게 주어지는 '농협금융인상(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상자는 10명이며, 대상 수상자는 NH농협은행 하민숙 과장이 선정됐다.

농협금융인상은 농협금융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성과중심 문화 확산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농협금융인상 수상자에게는 특전, 상패 및 상금의 혜택이 함께 수여됐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1직급 특별 승진의 영예가 주어졌다.

하 과장은 그동안 리테일메리트 종합

평가 전국 1위, 경남영업본부 MVP 우수 직원, 2016년 카드연도대상 3연패 달성, 매년 금융관련 교육과정 이수 및 금융자격증 4개 보유 등 자기계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지역 복지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협금융은 '2017 NH농협금융 사회공헌상' 시상식을 동시에 개최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농협금융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직원 및 봉사단체에도 시상 및 포상을 실시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제주지역 장애인시

총 10명 수상... 특전·상금 등 혜택 대상 수상자 1직급 특별승진 영예

설, 한센병 가정 방문 등 매 주말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농협은행 연북로지점 강승표 지점장(현 제주지역본부 부분부장)과 매 주 주말 자발적으로 가족과 함께 장애인들이 돌보고 있는 NH농협은행 WM연급부 김형리 차장이 수상했다.

단체 부문에서는 또 하나의 마을 자매결연 및 농촌일손돕기, 지역노인복지센터, 중증정신지체시설 등 방문을 통한 돌봄 활동 및 재정적 후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농협은행 'NH울산농협 사랑나눔봉사단', NH투자증권 '나이스(Nice) NH, 굿(Good) IC 봉사단' 및 NH저축은행 '행복 드림(Dream) 봉사단' 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혁신벤처기업 우대대출' 출시

KB국민은행은 혁신벤처기업 전용 대출상품인 'KB 혁신벤처기업 우대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여성기업협회 등 혁신벤처 유관기관이 추천한 혁신벤처기업으로 기술등급이 T5(보증서담보는 T6) 이상인 혁신벤처기업이다. 해당 기업에는 연간 3000억원씩 향후 5년간 총 1조5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혁신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혁신벤처 유관기관 및 기술보증기금과 '창업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혁신벤처기업 지원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KB 혁신벤처기업 우대대출'은 신용등급 및 상품우대금리, 기술등급 우대금리, 일자리창출 우대금리 등 최대 2.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신용도 및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3000억원의 '혁신벤처기업지원 협약보증'에 대해 0.6%의 보증료(연 0.2%씩 3년간)를 지원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혁신벤처기업은 혁신성장을 주도할 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며 "KB국민은행은 혁신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혁신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연기금 등 수급 호조... 중소형주 투자펀드 주목

코스닥 갤러리

(下) 투자키워드 '중소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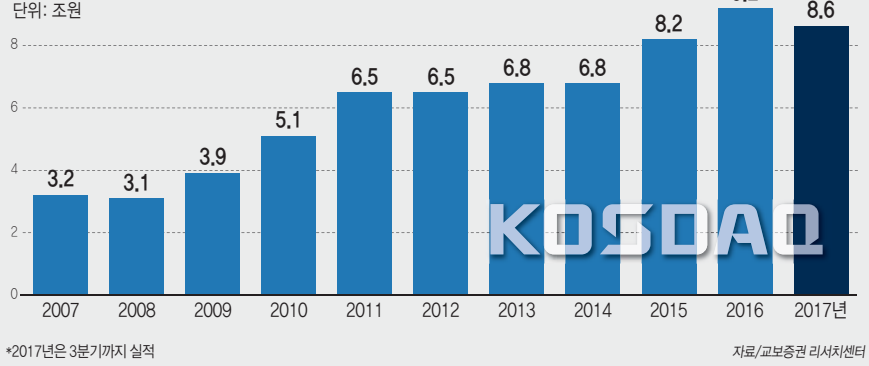
중소형주 펀드 순자산 1591억 ↑
 제약·바이오 산업 실적도 한 몫
 정부 투자 혜택에 우호작용 예상
 평균 40% 수익률 '상반기 적기'

금융투자업계는 중소형주 투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코스닥 띄우기에 대대적으로 나서면서 중소형주 상승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16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액티브형 중소형주 펀드 순자산이 1591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액티브형 주식 일반형에서 7584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과 대조적이다.

인덱스형으로 분류되는 코스닥 ETF(상장지수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더욱 가파르다. 최근 3개월동안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총 5조8606억원의 자금이 몰렸는데 이 중 코스닥 ETF에 1조8870억원이 몰렸다. 이에 전체 순자산은 1조5532억원에서 2조440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코스닥 연도별 영업이익 추이와 전망



최근 코스닥 시장이 유망한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영향이다.

아울러 기술력만 평가를 받던 제약, 바이오 산업의 실적이 수반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기준 코스닥 영업이익은 2년 연속 상승했고, 2017년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1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자산운용사, 중소형 펀드 상품 준비 바차
 이에 자산운용사들은 중소형펀드를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심지어 코스닥 종목에만 투자하는 펀드 상품도 나왔다. 기존 중소형펀드에는 코스피 중소형

주도 포함되기 때문에 완전한 코스닥펀드는 없었다. 현대인베스트먼트는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만 투자하는 '코스닥포커스 펀드'를 내놓은 것이다.

김성민 현대인베스트먼트 팀장은 "지난 2013년부터 미국 나스닥(NASDAQ), 일본 토픽스(TOPIX) 등은 가파른 상승을 해왔는데 한국 코스닥만 정체돼 왔다"며 "코스닥 시장에 기관 자금 유입이 기대되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로 코스닥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지난 10일 '플러스 텐베거중소형주 펀드'를 선보였다.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중소형주

관련 투자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코스닥 벤처펀드 조성 시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배정하는 등 여러 혜택을 약속해서다. 또 해당상품 혜택(10%)을 받을 수 있어 투자자금의 유입도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월에는 코스피 232종목, 코스닥 68종목으로 구성된 새로운 벤치마크 지수인 KRX300(가치)이 출시되고, 6월에는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 코스닥 중소형주지수도 발표한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제안이 많다는 평가다.

김형우 한화자산운용 채널컨설팅팀 차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코스닥 시장 수급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스닥 투자에 각종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와 판매사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까진 코스닥 시장에는 정보기술(IT)과 헬스케어 제외하면 투자할 만한 종목이 많지 않고, 투기적 자금도 많은 것 같다"면서 "장기적 운용 관점에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중소형주 투자 비중 늘려야...

증권사의 올해 투자 키워드는 '중소형주'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코스닥 지수 고점을 880에서 1070포인트로 상향조정했다. 하나금융투자는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시장을 분석한 결과 정부 집권 2년차 상반기 코스닥은 평균 40%의 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상반기가 코스닥 투자의 적기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의 기관 수급 유인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연속 코스닥시장에서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기관의 자금을 순유입세로 돌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주식에서 총 127조2000억원(2017년 3분기 기준)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코스닥 투자를 1%포인트(p)만 늘려도 1조원의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정훈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의 상승 가능성에는 이견을 두지 않으면서도 "현재 일부 종목들이 과평가된 상태로,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며 "밸류(가치)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들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슬림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KB증권 기초자산 ELS 등 11종 상품 공모

KB증권은 오는 19일까지 3개 기초자산(Nikkei225, HSCEI, S&P500)으로 연 7.6%(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 able ELS 354호(3년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를 포함한 원금비보장형 추가연계증권(ELS) 7종,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DLS) 2종, 원금지급형 기타파생결합사채(DLB) 2종 등 총 11종의 상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S&P500지수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KB able ELS 351호(3인덱스 슈퍼리자드 울트라 스텝

운형)는 노 낙인(No Knock-In Barrier) 구조로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를 주며, 최고 연 3.6%(세전, 리자드 조기상환 시 연 7.2%)의 수익을 제공한다.

S&P500지수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KB able ELS 352호(3인덱스 리자드 울트라 스텝 다운형)는 노 낙인(No Knock-In Barrier) 구조로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를 주며, 최고 연 4.55%(세전, 리자드 조기상환 시 연 9.1%)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kmh@

현대산업, 올 1만 6000가구 공급

지나해 보다 물량 소폭 증가
서울 도시재생 사업지 4개 공급

HDC현대산업개발이 올해 1만6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14곳, 1만 6180가구(임대분양포함)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5곳, 1만 5579가구와 비교해 소폭 증가한 물량이다. 특히 전세대란으로 주택수요가 있는 서울과 수도권 공급 물량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달초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도 수지광교산 아이파크를 시작으로 약 60%에 달하는 물량을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공급한다. 서울 5곳 4489가구와 수도권 4곳 4734가구다.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부산, 대전 등 주요 거점 도시에서 5곳 6957가구를 공급한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시재생 사업이 전체 공급 물량의 약 40%로 6861가구 규모다.



수지광교산아이파크

도시재생 사업지는 조합물량 소화로 안정적인 공급성적에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다. 자체사업지로는 1곳 1373가구, 상반기에는 고척 아이파크(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2205가구를 선보인다.

서울 내 도시재생 사업지는 오는 3월 당산 상아현대를 시작으로 장위7구역, 아현2구역, 하반기에는 강남권 사업지인 개나리4차 등 4개 사업장이 공급된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3월에는 전주 바구벌 1구역을 시작으로 부산 온천2구역, 안양 임곡3지구, 부산 거제2구역 등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 분양 예정 단지는 뛰어난 입지와 상품성, 아이파크 브랜드 파워로 견고한 사업실적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하이투자증권 50억 규모 ELS 1종 출시

하이투자증권은 19일 오후 1시까지 추가연계증권(ELS) 1종을 총 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HI ELS 1368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HSCEI) 지수, 유로스탁스(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5.0%(연 5.0%)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 시 최초 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 제시수익률을 지급한다.



단 65%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다. /손범지 기자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CES에 간 까닭은?

전 세계 증시가 강세를 시현했던 지난 주, 5명의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의 중심지 월가가 아닌 세계최대의 가전·IT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소비자가전전시회)를 찾았다.

4차산업혁명의 전령사라 불리는 CES에서 월가보다 한 발 앞서 해외주식 투자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IT담당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해외주식담당 애널리스트까지 이례적으로 박람회에 참석해 선진기업들의 성장 포인트를 현장에서 직접 분석했다.

이는 최근 차량의 전장화와 텔레매틱스화의 가속화로 CES가 가전 뿐 아니라 자동차, 통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

술의 경연장으로 탈바꿈하면서 글로벌 투자의 핵심 아이디어를 발굴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이런 첨단업종의 글로벌 트렌드를 고객들의 해외분산투자전략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애널리스트와 PB 등이 단체로 CES에 참석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 탐방활동과 발빠른 고객전파 덕에 2017년 말 기준 삼성증권 고객이 보유 중인 미국주식 중 CES에서 다루는 IT, 자동차 관련주 비중이 절반에 (46.5%) 이를 만큼 고객투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018년 CES에 참석한 삼성증권



삼성증권 2018CES탐방현장

애널리스트들은 지난 15일 'CES 2018: 구글의 위협속에 제조업의 희망을 보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한데 이어, 16일에는 '아재의 눈에 비친 혁신의 세상'이란 리포트를 발간하는 등 본격적인 투자정보 전파에 나섰다. /김문호 기자

동대문 축구장 명맥 잇는다

홈플러스 풋살파크 11호점 오픈

홈플러스가 동대문 축구장을 10년 만에 되찾는다.

홈플러스는 스포츠마케팅기업 HM스포츠와 함께 자사 동대문점 옥상에 풋살파크 11호점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홈플러스 풋살파크는 친환경 인조잔디가 깔린 국제구격(길이 42m·너비 22m) 구장이다. 어린이 부상 방지를 위해 각 구장 벽면에 1.5m 높이 세이프 쿠션을 세우고 야간 경기를 돕는 스포츠 LED 조명도 갖췄다. 연중 어느 때나 지역 시민과 유소년 축구클럽이 생활체육을 위해 쓸 수 있게 만든 곳이다.

이번 동대문점 오픈으로 홈플러스 풋살파크는 10호점을 돌파, 전국 최대 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홈플러스와 HM스포츠는 이달 전주완산점을 추가로 열고 연내 부산, 천안, 창원, 순천 등 각 권역 구장을 20여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와 성인들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 아마추어 풋살 리그도 준비 중이다.

동대문 축구장의 명맥을 잇는다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 과거 동대문 일대는 한국 유통과 스포츠의 성지로 꼽혔다. 1905년 국내 최초의 근대 시장으로 들어선 동대문시장과 1925년부터 80여 년간 국내 스포츠 역사를 증언하는 동대문운동장이 중심에 있다. 특히 동대문운동장은 지난 2008년 철거



홈플러스 풋살파크 동대문점. /홈플러스

됐지만 1984년 서울운동장이라는 이름을 잠시 내주기 전까지 올림픽과 월드컵 예선 축구대회를 비롯해 고교야구, 대학교연전 등 굵직한 경기들을 치른 곳이다.

이번 동대문 축구장의 부활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부활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가장 큰 원인은 소비 트렌드 변화다. 시민들의 삶에서 여가의 비중이 높아지고 쇼핑과 함께 휴식, 놀이, 먹거리까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체험형 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른바 '쇼퍼테인먼트'는 유통가의 대세가 됐다. 대형마트에서 동대문 축구장이 다시 살아난 이유다.

실제 최근 유통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매장에 풋살, 농구, 야구는 물론 양복등반, 자유낙하 등 익스트림 스포츠까지 들이기 시작했다. 2016년 문을 연 홈플러스 서수원점 풋살파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근 택지지가 개발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4만여 명의 고객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진 기자



인천공항 T2서 웨이크셱 판다

(제 2여객터미널)

식음료 브랜드 등 26개 매장 운영
최첨단 IT기술 접목해 편의성 높여

SPC그룹이 인천국제공항 제 2여객터미널(이하 인천공항 제2터미널) 준공에 맞춰 식음료 매장 등 컨세션사업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SPC그룹은 지난해 1월 공개입찰을 통해 인천공항 2터미널의 중앙부와 동편에 대한 식음료부문 컨세션사업 운영권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출입국장이 위치한 랜드사이드 중앙부와 동편 면세구역인 에어사이드, 교통센터, 라운지에 자사 브랜드 18개 등 모두 26개 매장을 운영한다.

SPC그룹 관계자는 "제1터미널 사업장 운영 성과와 노하우를 인정받아 제2터미널에도 컨세션사업을 운영하게 됐다"며 "연간 7200만명이 찾는 글로벌 허브 공항이자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관문에서 SPC그룹의 다양한 브랜드를 세계인에게 알리고, 글로벌사업 가속화를 위한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SPC그룹은 '스마트(smart) 공항'을 표방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발맞춰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해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였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웨이크셱, 빛은, 잠바주스는 해피엠플을 통해 제품을 미리 주문하고 수령할 수 있는 '해피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며 배스킨라빈스, 웨이크셱에는 무인주문기인 '해피스테이션'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그린(Green, 친환경)'을 주제로 매장 내·외부 곳곳에 다양한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적용했다. 1층 입국장에 위치한 파리바게뜨는 전문 플라워숍과 협업해 '플라워카페'로 꾸미기도 했다. 3층 중앙부 랜드마크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와 커피앳웍스는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무소인 네덜란드의 유엔(U N)스튜디오와 협업을 통해 잘 가꿔진 정원을 모티브로 디자인했다.

SPC그룹은 기존의 제1터미널에는 없었던 새로운 브랜드도 선보인다. 지하 1층에 위치한 교통센터에는 SPC그룹이

국내 독점 운영하는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 '웨이크셱'을 운영하며, 4층에 위치한 환승 구역에는 358㎡규모의 'SPC 트래블 라운지'도 운영한다. 'SPC 트래블 라운지'는 공항 이용객의 휴식공간이자 전망대로 활용된다. 기본적인 스낵과 식음료뿐만 아니라 천연효모빵, 하이면우동, 호빵 등 SPC그룹의 대표 제품도 제공된다. 해피포인트 앱 멤버십 가입자에게는 3월 말까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비자, 아멕스, 유니온페이, 현대, 삼성 등 신용카드 소지자도 등급에 따라 무료로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SPC그룹은 지난 2007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2기 컨세션사업자로 선정돼 10년간 식음료 매장을 운영해왔으며, 이 기간 동안 인천공항은 세계공항 서비스평가(ASQ)에서 12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 현재 제1터미널에는 에어사이드(환승과 탑승 면세지역) 3층 구역의 식음료 컨세션 사업을 운영하며 40개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인도차이나반도 소주시장 구축 본격화

하이트진로

포차2호점 등 현지 프로모션 강화

하이트진로가 인도차이나반도에 소주 시장 구축을 본격화한다.

하이트진로는 인도차이나반도에 지사 및 사무소를 추가로 설립하고, 진로포차 2호점을 개업하는 등 현지 프로모션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하는 호찌민 지사는 2016년 베트남 법인을 설립한지 2년 만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이트진로의 해외법인 이 지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법인이 없는 필리핀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베트남에 진로포차 2호 및 캄보디아에 안테나샵을 추가로 운영하는 등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소주시장을 확대하고 현지프로모션을 강화한다.

하이트진로는 소주의 세계화를 이끌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다양한 현지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캄보디아 하이트진로 안테나샵. /하이트진로

베트남 하노이에 진로포차 1호점과 캄보디아 프놈펜에 안테나샵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필리핀 등에서 할로윈과 크리스마스 클럽파티를 실시해 소주 알리기에 힘써왔다.

황정호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장은 "동남아시아는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자 소주세계화의 시작점"이라며 "자투에이슬 등 현지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주류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프리미엄 버거 'AZ' 누적 판매 1000만개 돌파

롯데리아 내일까지 40% 할인

롯데리아는 지난해 7월 선보인 정통 오리지널 버거 AZ(아제)버거가 누적 판매량 1000만개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롯데리아 AZ버거는 버거의 주원재료인 번과 패티의 차별화를 둔 제품으로 저온에서 12시간 발효한 통밀발효종 효모를 사용하여 촉촉하고 부드러운 브리오쉬번을 통해 버거의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

또한 지난해 11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 지역이자, 세계문화 유산으로 보호중인 태즈메니아에서 사육한 소고기로 만든 패티로 제품을 리뉴얼해 고소하고 풍부한 육즙과 패티에 훈연향을 입혀 숲의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개선했다.

AZ버거 1,000만개 돌파기념

AZ오리지널

₩6,400

₩3,900

*당 1인당 1인당 100원 이상 구매 시

롯데리아는 AZ버거 1000만개 판매 돌파를 기념해 오는 1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장 방문 고객 대상 'AZ 오리지널' 제품을 정가가 대비 약 40% 할인한 3900원에 판매한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AZ는 버거의 식감을 결정하는 주요원재료인 번과 패티의 차별화를 통해 식감을 강조한 제품이며, 출시 6개월만에 1천만개를 돌파한 고객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마트서 자동차 산다”... ‘M라운지’ 확대

이마트 스마트모빌리티 편집샵
부산·대구 등 전국 7개 점포 넓혀
전기차 등 新이동수단으로 부상

대형마트에서도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이마트는 지난해 3월 영등포점에 처음으로 선보인 스마트모빌리티 편집샵인 'M라운지'를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의 7개 점포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제주점과 성수점에는 '팝업 매장'을 구성했다.

M라운지는 이마트가 직접 개발한 '페달렉'과 '만도푼투스', '마스칼리' 등 유명 전기자전거 브랜드부터 '에어휠(전동휠)', '아이보트(전동킥보드)' 등을 판매하는 전문 매장이다. 관련 액세서리까지 포함하면 상품 종류가 100여가지에 달한다.

대형마트에 등장한 자동차로 화제를 모았던 초소형 전기차 'D2' 모델도 전시 및 예약 접수를 받고 있다.

D2 전기차는 2인승 초소형 해치백 자동차로 유효L7e 인증을 취득해 안정성과 실용성을 입증 받았으며 1회 충전(완속충전기 220V 기준·6시간 완충)으로 최대 150km 가량을 주행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국내 인증 절차를 완료한 'D2'의 실 구매가는 이달 말경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 정부정책에 따른 보조금 정책이 확정되면 지자체별 편차



이마트 M라운지 전경. /이마트

를 감안해 1300~1400만원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마트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D2'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이달 18일부터 한달간 KB국민카드로 구매 시 12개월 무이자 할부 및 삼성카드 자동차 리스 상품(계약기간 48개월 기준·월 리스료 20만원대 중반) 출시 등 다양한 금융 지원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마트가 스마트모빌리티 대중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는 전기차와 전기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수단이 1~2인 가구 증가로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개인 이동수단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마트의 스마트모빌리티 매출은 2016년 10억 규모에서 지난해 20억으로 2배 가량 성장했다.

또 올해 3월부터 '자전거 이용활성

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기자전거 이용이 가능해지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는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스마트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해 'M라운지'를 전국 주요 점포 중심으로 2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허준석 이마트 스포츠 바이어는 "스마트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상품들을 한 곳에서 비교 및 구매할 수 있는 편집매장을 구성하게 됐다"며 "기존 마트에서 판매되던 상품군의 한계를 넘어서는 전기차와 전기오토바이까지 선보여 이마트에서 장보기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현대백 '남성 육아 참여 지원 프로그램' 실시

현대백화점이 남직원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현대백화점은 올해부터 자녀를 둔 남직원을 대상으로 한 '남성 육아 참여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1년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100% 보전 ▲육아월(30일 휴가제) ▲2시간 단축 근무제(1개월간) 등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남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우선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직원을 대상으로 휴직 후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본인의 통상임금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최대 150만원)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유통업계에서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 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 측은 금전적 부담을 덜어줘 남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현대백화점은 자녀를 출산하게 된 남직원을 대상으로 기존 출산휴가(7일)를 포함해 최대 1개월(3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육아월' 제도도 도입한다. 육아월 제도 사용 이후에도 남직원들이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달간 근무시간이 2시간 줄어든다.

2시간 늦게 출근하는 아침형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저녁형으로 나눠, 직원들이 각기 다른 육아 환경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김유진 기자

내실 다지고 떠나는 임채운 “중진공, 이젠 도약할 것”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3년간의 임기 마치고 퇴임 경영혁신 ‘독수리팀 TF’ 구성 성과중심으로 정책자금 운용 “中企 베스트 파트너 역할 확산”

“무거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은 시원하지만 직원들과 헤어지는 것은 섭섭하다.”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3년간의 임무를 끝내고 진주를 떠나면서 16일 출입기자들에게 전한 소회다. 임 이사장은 퇴임 후엔 모교인 서강대학교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한다. 그는 이임사에서 지난 3년을 “실물 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중소기업의 고민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동안 몸 담았던 중진공에 대해선 “지속적인 자기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베스트 파트너’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교수 출신인 임 이사장이 3년전 부임하

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내실’을 다지는 것이었다. 임 이사장은 “나는 경영학자다. 업무를 혁신하고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실제 그는 부임후 혁신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만들어 관행을 개선하는 등 내부 혁신에 주력했다. 비위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에도 힘썼다. 상시적으로 경영혁신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인 ‘독수리팀’을 운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자신이 이사장을 맡기 전에 발생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인턴 채용 문제 등으로 본의아니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가 떠나면서 ‘무거운 자리’라고 말한 것도 어쩌면 과거 중진공 주변에서 벌어졌던 일을 향후 이사장이 된 본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버거운’ 때문일 수도 있다. 그는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에도 주력했다. 임 이사장은 “내 전공이 마케팅인데 취

임하고 나서 마케팅만 이야기했더니 공공기관이 마케팅을 하는 것엔 한계가 있었다”면서 웃음도 지었다. 자신의 전공을 늘 강조한 덕에 성과도 적지 않았다. 2015년 알마티(카자흐스탄)에 문을 열었던 수출 BI는 2016년 들어 중징(중국), 산티아고(칠레)로 영역을 넓혔고, 지난해엔 방콕(태국), 양곤(미얀마)까지 확대했다. 중소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목표로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기 위해 2015년 꾸렸던 ‘글로벌 퓨처스 클럽’은 첫 해 536곳에서 1559곳(2016년), 2236곳(2017년)으로 각각 늘었다. 중진공 본연의 역할인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에도 힘썼다. 임 이사장은 “초기엔 시스템이 불안하기도 했지만 정책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효율화를 꾀했고, 수출이 많이 했거나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정책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성과중심으로 집행한 것도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창업, 소기업, 재도전 등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줘 시장실패를 최대한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기본에 충실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기술·사업성 평가가 정착되고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등 금융개선을 이끄는 데 앞장섰다. 또 정책자금을 준 뒤 수출성과 및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우대지원해 기업의 자발적 성과창출을 유도하기도 했다. ▲전자서명 도입 ▲오프라인 제출 서류 간소화 ▲사전 상담예약제 확대 등 역시 모두 정책자금 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임 이사장은 “새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동안 내실을 다진 중진공이 이젠 도약을 할 때가 됐다”면서 “선생이 잘 하는 일이 글쓰고 가르치는 것만큼 집필과 학생들

키우는데 몰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이사장은 한국유통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경영학회 등을 두루 책임지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사진=중진공

필립스, 칫솔질 습관 관리하는 ‘스마트 음파칫솔’

‘다이아몬드클린 스마트’ 선보여 양치습관 극복 ‘덴탈 솔루션’ 제시

필립스 소니케어가 최첨단 음파기술을 전동칫솔에 적용, 잘못된 양치습관을 극복할 수 있는 덴탈 솔루션을 제시했다. 필립스코리아는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음파칫솔 브랜드 ‘소니케어’의 스마트 음파칫솔 ‘다이아몬드클린 스마트’를 선보이며 음파칫솔이 구강건강과 치주질환 예방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임상 데이터를 통해 설명했다. 소니케어는 지난해 대한예방치과학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양치혁신 캠페인’을 론칭하고 ‘구강건강 및 양치습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잘못된 양치습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해당 캠페인의 연장선상으로 소니케어는 ‘양치혁신’이 ‘칫솔혁신’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잘못된 양치습관 교정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 음파칫솔을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다이아몬드클린 스마트’는 최첨단 커넥티드 및 센서 기술로 양치습관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사용자가 설정한 양치 목표와 개인 프로필에 가장 적합한 덴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핸들에 탑재된 위치 센서와 문지름(sc rubbing) 센서, 압력 센서가 구강 안을 3D맵으로 재구성해 칫솔의 움직임과 위



서홍표 필립스코리아 부사장이 필립스 소니케어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필립스코리아

치, 압력을 분석해 양치습관을 모니터링한다. 마하 야콥 필립스 임상과학 담당 글로벌 이사는 “최신 임상연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 음파칫솔이 일반칫솔보다 더 효과적으로 플라그를 제거해주고 치은염과 잇몸출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임상실험에 따르면 만 18~70세의 성인 남녀 141명을 대상으로 4주간 실시한 결과 소니케어 사용자는 4주전에 비해 플라그 34.9%, 치은염 25.5%, 잇몸출혈 57.4%가 감소된 반면, 일반칫솔 사용자는 플라그 8.0%, 치은염 19.1%, 잇몸출혈 31.4% 감소에 그쳤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공정위, ‘대리점 갑질’ 혐의로 한샘본사 조사

“교육비 명목으로 수수료 챙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국내 1위 가구전문업체 한샘을 조사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샘 삼암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현장조사는 사건을 인지하고 범위반 혐의가 확인됐을 때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정위는 B2C 영업부문 사무실에서 대리점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공정위 국감에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한샘이 대리점 업체와 관련해 대리점법이 규정한 행위 제한 규정 전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샘이 플래그십 내 부엌가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대리점 직원을 직접 선발해 배치할 때 대리점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등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한샘이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정해 강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플래그십 내 영업활동을 제한했다으며, 대리점에 전단지 제작이나 배포비용을 전가하고 카탈로그, 명찰, 사은품 등을 구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박인용 기자

매출·신뢰·인지도 다 누리는 다점포 인기

운영 노하우 추가 출점매장에 적용 빠르고 안정적으로 시장 안착 가능 창업시 기존 점주의 만족도 살펴야

다점포 비율이 높은 브랜드가 예비창업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서도 한 점주가 동일한 브랜드 내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며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다(多)점포 운영은 가맹점주가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본사의 내실이 탄탄하고 수익성이 높은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의 만족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다점포 창업은 기존 매장 운영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추가로 출점하는 매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빠른 시일 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또한 원재료 공급과 인력 관리 등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을 통한 유연적인 운영이 가능하므로, 매출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삼겹살 전문점 ‘하남돼지집’의 다점포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현재 하남돼지집은 전체 매장 중 약 70개 매장이 다점포 운영 매장이다. 159명의 가맹점주들 중 29명이 2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매가 프랜차이즈형 점주이다. 이처럼 다점포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하남에프앤비



/뉴턴텐츠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매출 향상을 위한 본사 지원 그리고 점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열린 소통이 꾸준한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남돼지집 본사 측은 설명했다.

카페 오가다는 다점포 비율은 약 15%다. 오가다는 전국 90여개 매장을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12개가 다점포 운영 매장이다. 오가다 파인에비뉴점과 롯데마트 구로점을 운영하는 박기서 점주는 상권의 특성이 전혀 다른 두 곳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계절과 요일, 고객 특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출의 위험 요소를 상쇄하고 있다.

근처 주거 상권을 타깃으로 하고, 주말에 가족단위 손님이 몰리는 구로 롯데마트점과 평일 주변 직장인들의 방문이 높아 주중에 매출이 높고 주말, 공휴일에는 휴점하는 전형적인 오피스 상권인 파인에비뉴점을 동시에 운영하다보니, 요일별로 두 매장에 모두 집중할 수 있으며, 점주 스스로 두 매장 근무가 가능하다보니 인건비를 줄여 운영할 수 있다. 스크린야구장 브랜드 스트라이크존

의 다점포 비율이 약 30%에 이른다. 스트라이크존 창업의 장점은 운영 간소화다. 외식업체처럼 재료준비, 요리, 서빙 등 복잡한 과정이 없다. 또한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높은 매출이 가능하다.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밀착 지원 시스템의 영향도 있다. 본사는 점주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매장 운영과 거점 마케팅을 지원하는 SM(Store Manager)제도, 빠른 A/S와 정기 점검을 지원하는 STM(Strikezon Technical Manager)제도 등이 있다.

콩나물국밥 프랜차이즈 ‘콩심(心)’의 다점포 비율 23%다. 론칭 2년 만에 전국 5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콩심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점주의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초 전국적으로 창업문의가 늘어 대구지사를 설립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매장에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점주들은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추가 수익을 낼 수 있고, 가맹본부의 브랜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u17854@

고용부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공모

올 사업 기관당 사업규모 확대

고용노동부는 이달 31일까지 2018년도 일경험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및 민간 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일경험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 등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정보습득 및 중소기업 인

식 개선, 기업현장에서의 직무경험 등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탐색 및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용부는 올해 보다 역량 있는 운영기관의 참여를 위해 전체 선정규모는 축소하고 기관당 사업규모는 확대해 기관의 전문화 및 내실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일경험 사업들을 수요자 특성에 맞게 유형을 분류해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지원과 관련된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및 일경험홈페이지(www.work.go.kr/exper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7-4625호(2017.9.19)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든든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무료 상담 및 문의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한-몽골, EPA 통해 글로벌 진출 기대

대한상의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오희나 후렐수흐 몽골 총리를 초청해 몽골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오희나 후렐수흐 총리는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했다.

또한 농식품, 경공업, 도로교통, 환경, 관광 등 협력 가능 분야의 장관들도 대거 동행해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희나 후렐수흐 총리는 특별연설을 통해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을 강조하며 "지난 16년부터 논의가 진행돼 오고 있는 한-몽골 EPA를 통해 몽골은 동아시아와 태평양으로, 한국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대한상의 측은 한-몽골 EPA 체결 시 양국간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에 따라 교역량 증



대한상공회의소는 방한한 오희나 후렐수흐(Khurelsukh Ukhnaa) 몽골 총리를 초청해 몽골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세번째)과 오희나 후렐수흐(Khurelsukh Ukhnaa) 몽골 총리(가운데)가 주요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가와 자원협력 확대가 기대된다고 했다.

포럼에는 몽골 측에서는 오희나 후렐수흐 총리를 비롯해 바타르자브 사와자브 몽골상의 회장, 족트바타르 담딩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주요인사와 대표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희용 동양물산 회장을 비롯해 두산중공업, LS산전, 대림산업 등 몽골 투자에 관심 있는 100여개 기업들의 대표자들을 비롯해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참석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metroseoul.co.kr



신한은행은 KBO와 함께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18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 조인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신한은행 위성호 은행장(왼쪽)과 KBO 정운찬 총재. /신한은행

신한은행 2018 KBO리그 타이틀스폰

신한은행은 KBO와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18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서 신한은행과 KBO는 2018년 KBO리그의 공식 타이틀을 '2018 신한은행 MYCAR KBO 리그'로 확정하고 공식 엠블럼도 공개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타이틀스폰서 계약으로 오는 2020년까지 3년 간 KBO 리그의 공식 타이틀 사용 권리를 가지며, KBO 리그 및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10개 구단과 협력해 다양한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서울시 '핸드허그 캠페인' 후원금 1.7억 기부

서울시는 '핸드허그 캠페인' 후원금 1억 7000만원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기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핸드허그 캠페인'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인철 복지본부장과 굿위드어스 임통일 이사장, 애경산업 강영복 본부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효진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애경은 1360만 원 상당의 비타민, 샴푸 등의 물품도 기부했다.

'2017 핸드허그 캠페인'은 나눔·소통·생명·사랑·자원봉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서로 한 손을 마주 잡고, 나머지 한쪽 손으로 각자 손가락 하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서로에 대한 공감과 관심을 표현하는 릴레이 기부 캠페인이다. 시가 주최하고 굿위드어스가 주관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주)RBW, (주)에스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후원했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



부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이범중 기자 joker@

오비맥주 카스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오비맥주 카스가 온라인 공익 광고를 통해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오비맥주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카스의 '건전음주 캠페인' 영상을 제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광고 캠페인은 '부딪쳐라, 끝까지 Fresh하게!'라는 메시지를 주제로 신선한 카스와 함께 끝까지 즐겁고 책임 있는 술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소비자들이 평소 음주운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물체 카메라 형식으로 제작했다.



/박인용 기자

신점[神占] 운세 1월 17일 (음 12월 1일)

힐링운세 (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60년생 운이 좋지 않으나 자만해선 안됩니다. 72년생 아랫사람을 잘 다스려야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84년생 기다리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6년생 기운이 앞서니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소 61년생 지인에게 부탁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73년생 건강 관리가 가장 우선입니다. 85년생 일이 안 풀릴수록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97년생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나를 먼저 살펴보세요.

호랑이 50년생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2년생 오늘은 어렵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74년생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86년생 뒷사람의 도움을 받아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토끼 51년생 밀어 부치지 말고 차근차근 추진하세요. 63년생 변화보다는 현재에 대한 만족이 필요합니다. 75년생 어려움이 있지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87년생 걱정 없이 무난한 하루입니다.

말 52년생 미리 준비하면 운이 계속 따릅니다. 64년생 지나친 모험만 피하면 좋은 운이 계속됩니다. 76년생 욕심을 버리고 주위를 먼저 챙기세요. 88년생 너무 민기만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뱀 53년생 안 좋은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5년생 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운이 따르는 하루입니다. 77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89년생 지금 하는 일이 별 이득이 없습니다.

말 54년생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을 수 있습니다. 66년생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 먼저 베풀세요. 78년생 지극 결정하지 말고 나중에 결정하세요. 90년생 새로운 변화와 시작이 필요합니다.

양 55년생 추진하던 일이 잘 풀립니다. 67년생 재물이 좋고 이득이 있으나 어디에 쓸까 고민입니다. 79년생 들어온 재물을 잘 보관하세요. 91년생 선택이 필요합니다. 좋은 방향은 북쪽입니다.

원숭이 56년생 원만한 복이 있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68년생 다투면 손해를 보니 참으세요. 80년생 운이 좋지는 않지만 큰 손해는 없습니다. 92년생 뒷분에게 칭찬이나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닭 57년생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9년생 덕을 베풀면 쉽게 일이 풀립니다. 81년생 후배에게 잘하면 더욱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93년생 직접 행동보다는 주위의 도움을 받으세요.

개 58년생 계획하던 일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0년생 겸손하게 대응하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82년생 다른 일보다 본인에 충실하세요. 94년생 음식물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 59년생 고집을 버리면 오히려 이득이 있습니다. 71년생 인연운이 좋으니 만남이 즐겁습니다. 83년생 자만심보다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95년생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2			3					1
	1		7		2			9
		4				3		
	7		5		1			4
1				9				8
	4		8		3			2
		1				8		
	5		3		8		1	
3	8		5		6			4

		3		6	1	5		8
4				2		9		5
			7	3			4	9
	4	3					8	7
5					3			6
	1	6					2	5
		5	8		2	1		
8				7		1		9
	7				9			6

스도쿠 정답

6	1	9	6	5	1	8	7	9
6	1	2	8	7	4	5	9	8
5	8	9	7	2	1	6	7	4
2	2	1	4	9	8	5	7	6
8	9	5	7	6	7	2	4	1
4	7	6	1	2	5	9	2	8
2	8	4	5	1	6	7	9	2
9	6	7	2	8	1	4	5	9
1	5	7	4	9	6	8	2	7
8	9	5	4	6	7	2	1	9
6	2	4	1	5	7	9	8	3
2	7	1	2	9	8	5	6	4
4	5	2	8	7	6	9	1	2
9	6	7	4	1	8	2	5	9
1	2	8	9	2	5	4	7	6
2	1	6	7	8	4	1	5	9
5	4	9	6	2	7	1	8	3
7	8	2	5	1	9	6	4	2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회의四季



진정한 신앙인은 종교에 속지 않는다

선사시대 이후 역사시대를 통과해오면서도 정신의 함양과 영성의 추구하고 발전은 서양에서는 기독교문화로 종결되는 문화사회적 특성을 이루고 있다. 기독교문화의 발상지인 서구에서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기독교에 대한 반성과 회의가 점점 커져 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개신교인구가 전통 종교인 불교를 능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독교와 불교를 대립적 관계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종교적인 진리와 의미를 외면하는 것은 참 종교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에 물질문화를 숭상하는 모양새로 커가지만 하는 교회건물 대형교회의 세습과 등의 모습은 진정한 종교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청정함에는 반하는 것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불교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성직자나 출가 승려들이 진정한 종교인으로서 구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일반 재가 신자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그 어디에 비할 바가 없을 것 같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 하자 시자인 아난다존자는 후계자를 지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그러나 부처님은 후계를 지명하지 않으셨다. 다만 거듭 말씀하시길 내가 지금껏 가르치고 펼친 법들이 스승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시면서 덧붙이시길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진리)을 등불로 삼아 방일하지 말며 수행에 매진할 것을 독려 하신 뿐이었다. 이것이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구다.

참된 수행의 길에 있어 스승의 도움이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으나 구도의 종착점은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며, 도과에 이르는 수행과정은 이미 다 밝혀 놓았으니 누군가를 범람이라 지정하였을 경우 과생될 파벌과 분열을 미리 내어다 보신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고 필자는 자못 짐작해본다. 그러셨음에도 이문구가 주는 또 하나의 커다란 의미는 석가모니부처님은 스스로를 내가 범람이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자신도 세상의 진리를 깨달아 수도 없이 반복해온 고통의 원인인 윤회를 벗어났으니 이러한 진리를 알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감춘 것 없이 잘 드러내었으니 여러 못 중생들이 이 길을 부지런히 닦아 해탈할 것을 당부하셨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았음에도 수행자들은 물 밑 듯이 부처님을 따라 승가를 이루었던 것이다.

10분의 기적



김 주 식
세태 만화경

따르릉!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하게 시렸다. 스무 해 전의 자명종 시계! 시들하던 보일러가 서비스 수리를 받고 쉿 돌아가던 옛그제, 자명종 소리가 뜬금없이 왜 그리 듣고 싶던지. 녀석도 새 건전지를 갈아 끼우면 멀쩡하게 돌아갈까? 나는 그런 일말의 희망을 걸고 그 잊힌 녀석을 서랍 속에서 기어이 찾아냈다. 초침은 돌아갈까? 긴 세월 녹슬어 미동조차 없을까? 과연 어떻게 전개할지, 드라마틱한 그 예측불허의 초침 향방에 마음 졸이기도 처음이었다.

소마소마했다. 새 건전지 하나를 장착할 때 찌꺼기였다. 그게 아까부터 불안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다. 초침이 잘도 돌아간다. 기대하지 않았던 생동!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재깍재깍! 소리도 힘차다. 알람 시간에 이르자 따르릉! 법석을 놓는 건 예전처럼 여전하다. 그런데 울대가 쉬어 잡겼다. 안쓰럽고 측은했다. 한 고개 한 고개 까딱까딱 오르내리는 초침이 힘겨워 보이니까지 한다. 술한 고락을 함께 호흡해온 초침의 숨결. 갑자기 녀석과의 추억이 밀물져왔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녀석은 내 삼십대의 삶을 흔들여 놓았다. 아침을 여는 게 녀석의 직무라지만 소리가 너무 컸다. 새벽녘마다 팡파르를 울려댔다. 요즘처럼 밤이 길고 추운 날, 절절 끓는 방바닥에 노글노글해진 뭍이 어디 쉬 일어나려 하겠는가. 그러나 어찌했나. 뉴스 거리를 찾아 누구보다 일찍 눈을 떠야 하는 게 숙명인 것을, 녀석은 내 무거운 눈꺼풀을 끌어올리고 세상을 읽게 했다. 그리곤 내일의 아침을 기억하며 재깍재깍 숨을 고른다. 참 고마운 녀석이다.

녀석은 살림 목록의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보물 같은 존재였다. 그 보물을 고른 건 아내였다. 믿음직한 소리 하나만 믿고 꼭 집어냈다. 녀석을 상전 모시듯 안방 탁자 위에 앉혀줬다. 듣직했다. 신기하게도 알람 소리는 매번 다르게 들렸다. 기분이 산뜻한 날엔 리드미컬했다. 톤이 높긴 해도 부드러운 음색이 묻어났다. 침울할 땐 쇠붙이 소리가 끼어든다. 소음이다. 추적거리는 비와 합창하는 날엔 처연하게 들렸다. 소리에는 삶의 감정전선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녀석의 애칭은 10분!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 딱 요맘때, 아침회의가 있던 날이었다. 평소처럼 좀 여유가 있었거니 했는데 신문사 복도 앞 벽시계는 회의 시간을 넘기고 있었다. 알고 보니 녀석이 10분 늦게 잠을 깨운 것이다. 어째 알람

소리가 영 시답잖게 울렀다는 생각이 퍼뜩 스치긴 했다. 건전지 약발이 흐려진 틈을 타 며칠 새 녹장을 부렸던 거다.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녀석에게 그 전 말을 물어볼 수도 없지만 매일 시나브로 수초씩 값어치 먹었을 것이다.

예초에 손목시계를 차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 요즘처럼 시간을 띄워주는 스마트폰이 있었다더라면 모를까. 녀석 입장에선 우리 내외는 미련 곱탕이었다. 세상을 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1초의 가치를 허투루 보지마라고 녀석은 말하고 있었다. 10분의 시간이 갖는 삶의 보폭! 그 너비를 절감했다. 그날 이후 녀석을 10분이라고 불렀다. 내친 김에 녀석을 10분 앞질러 세상을 달려가게 했다. 깨어나는 시간이 10분 더 빨라진 것이다. 아니다. 그건 10분의 여유였다.

그 역발상이 우리 내외의 삶 패턴을 바꿔놓았다. 10분 상당인 생체 리듬의 시계. 10분 더 일찍 일어나는 눈금에 맞춰 놓으면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은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진다. 생활 활력소가 10분간 재충전되는 것이다. 그 가치를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일에 대한 추동력, 창의력, 열정. 능률이라는 삶의 샘물이 솟아나서다. 우리 집 거실에 걸린 둥근 벽시계는 늘 10분을 앞서 달린다. 보물 같은 자명종이 대물림해준 지혜, 기적의 10분이다.



지난 15일 진행된 MOU 체결식에서 고길호 신안군수(왼쪽)와 박남주 풀무원식품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풀무원

풀무원-신안군, 수산물 유통 MOU

판로개척으로 어촌 소득증대 기대한다.

특히 풀무원의 김 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신안군 장산도 해역 일대 김 양식장을 개발하여 김 계약재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래김, 돌김 등 마른 김 제품의 원재료인 원초 물김의 안정적인 수급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박남주 풀무원식품 대표는 "원초 물김의 안정적인 재배를 시작으로 신안군의 다양한 고품질의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 수산 상품까지 신안군과의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우럭, 전복, 낙지, 왕새우 등 수산특산품을 활용한 바른먹거리 개발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CJ헬스케어 오송공장, 연탄나눔 봉사활동
CJ헬스케어는 지난 15일 오송공장 임직원들이 충청북도 오송 지역 이웃들을 대상으로 연탄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탄 나눔 봉사활동은 매년 겨울 CJ헬스케어 오송공장이 충북연탄은행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날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오송공장 임직원들은 오송 지역의 취약계층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연탄 및 쌀,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이웃이 따뜻한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왔다. /CJ헬스케어

고원화에 발목 잡힌 성장 불씨



기지 수첩
이 봉 준
(파이낸스&마켓부)

올해 한국경제의 주요한 하방요인으로 원화 강세(환율 하락)가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원화가 달러당 106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환율 하락은 수출기업들의 상품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실제 환율 변동은 올해 기업 경영의 가장 큰 대외 불확실성 요소로 꼽히기도 했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같은 환율 하락에 관조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달 초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만남을 갖고 새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두 사

람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각각 최근 원화 강세와 관련해 "(환율 하락을)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표명했다. 기자들이 환율 하락이 수출기업의 실적 하락을 야기한다며 질문 공세를 이어갔지만 두 경제수장은 "(환율의)과도한 쏠림 시 적극 대처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두 사람의 관망에 다음날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오히려 더 강세를 나타냈다.

사실 정부가 적극적인 환율 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다. 자칫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환율조작국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조작국은 미국 정부의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환율 정책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조작국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서 한 차례 위기감을 불러온 바 있다. 환율조작국의 기준이 되는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경상수지 흑자

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된다는 이유였다. 특히 최근 한미 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협상에서 불리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이유로 원화 가치 강세 현상 속 환율 개입이라는 카드를 감추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몸을 사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올 들어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타격이 날로 심해지면서 시장에선 이제 정부의 환율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 경쟁력을 표방하는 우리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결국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발목을 잡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통상 마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은의 적절한 환율 정책으로 힘겹게 피어오른 한국경제 3%대 성장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KB손보, 세브란스 병원 등과 간편보험금 청구 MOU
KB손해보험은 세브란스 병원, 레몬 헬스케어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들의 간편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 개발을 위한 3차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보험금 간편 청구 프로세스 등 보험 관련 디지털 서비스 개발, 레몬 헬스케어와 헬스케어 플랫폼 관련 의료협력 체계 구축, 각 기관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제휴 영역 발굴 및 추진 등이 주요하게 추진됐다. KB손보 양종희 사장(오른쪽부터), 세브란스 병원 이병석 병원장, 레몬 헬스케어 흥병진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손보

- 인사**
- ◆국방부 ◇과장급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관실 정보화기획담당관 차용국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실 인적자원개발과장 신일현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은성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 정철 조민행 조준미
 - ◆한전원자력연료 ◇처·실장급 △인사노무처장 오문교 △건설기술실장 김승진 △기획처 성과관리팀장 염준호 △경영지원처 총무팀장 이종무 △

- 경수로연료처 경수로연료기술팀장 김용관 △튜브생산처 튜브개발팀장 김득연 △원자력안전처 원자력안전팀장 설중근 △경수로중설실 품질안전기술부장 이신영 △핵연료엔지니어링실 핵연료서비스부장 이상근 △원전사업처 설계관리팀장 남기일 △핵연료연구실 소재개발부 책임연구원 이승재 △팀·부장급 △사업관리실 동반성장부 연진호 △정보보안실 연료운송부 임태욱 △UAE사업실 ESM사업부 최영호 △감사실 기술감사팀 최재순 △정보보안실 사이버보안부 정병기 △세라믹처 세라믹기술팀 김영로 △튜브생산처 튜브성형팀 안창모 △NSA튜브사업실 NSA튜브운영부 김진목 △품질보증실 품질보증부 장경훈 △품질보증실 품질협력부 김정호 △원전사업관리처 인허가전략팀 장찬수 △노심설계처 OPR노심설계팀 김재식 △노심설계처 열수력설계팀 박성규 △안전해석처 신규원전사고해석팀 류계열 △안전해석처 가동원전사고해석팀 류석희 △설계연구실 성능해석기술부 전종국 △핵연료엔지니어링실 핵연료안전성능부 김장욱 △핵연료엔지니어링실 핵연료안전성능부 조운철

- ◆볼보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양성모
- ◆한국폴리텍대학 △기획국장 김봉준 △교육훈련국장 이재운 △운영국장 이연보 △경영혁신담당 김정숙 △교육훈련연구센터장 표정선
- ◆조세금융신문 △편집국장 신승훈 △전문기자 겸 미디어출판국장 양학섭 △콘텐츠사업국장 이지한 △콘텐츠사업국 부국장 윤봉섭

- 부음**
- ▲ 문선재(전 강원대 총장)씨 별세, 홍화자씨 남편상, 문호윤(JYP엔터테인먼트 본부장)·지윤·혜윤(고려대 교수)·재운씨 부친상, 이은주씨 시부상, 남궁민(호평고 교사)·송진호(아모레퍼시픽 차장)씨 장인상 = 15일 오전 4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17일 오전 5시. 02-3010-2261
 - ▲ 신하자씨 별세, 황정택(원예협동조합)·인택(C&D건설부장)·미애·현택(KBS 프로덕션2 기자)씨 모친상, 김용상(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행정실장)씨 장모상 = 16일 오전, 동이리장례식장 모란실, 발인 18일 오전 8시. 063-843-4444



에몬스가구 '11기 장학생' 12명에게 장학금
에몬스가구는 '에몬스 장학생' 11기로 뽑힌 12명의 대학생에게 50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와 대학생 자녀를 둔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장학금도 지급했다. 에몬스는 현재 연간 1억원 가량의 사내 장학금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에몬스가구 조성세 사장(왼쪽 첫번째)이 안산 고잔동 본사에서 장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몬스가구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1721-9800, FAX: 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 집 국 장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독자센터 021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206

겨울방학 마무리는 뮤지컬과 함께

햄릿: 얼라이브

‘굿바이 위크’·‘백스테이지 투어’ 진행

모래시계

‘약속으로 사는 모래시계’ 등 이벤트



뮤지컬 ‘햄릿:얼라이브’와 ‘모래시계’ 포스터. /CJ뮤지컬·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에 만나보면 좋을 웰메이드 창작뮤지컬 두 편을 소개한다. 세익스피어의 명작 ‘햄릿’을 무대 위에 올린 ‘햄릿:얼라이브’와 동명의 인기드라마를 모티브로 한 ‘모래시계’다.

뮤지컬 ‘햄릿:얼라이브’는 그동안 관객들이 보내준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한 ‘굿바이 위크’ 및 ‘백스테이지 투어’를 진행한다.

‘백스테이지 투어’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넘어 관객과의 소통을 시도한 특별 프로그램이다. 오는 18일과 24일 총 2회,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무대 뒤 백스테이지와 실제 공연의 조명 시연, 그리고 강부훈 연출과 ‘클로디어스’역의 양준모, 임현수 배우와의 만남 및 기념촬영까지,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어있다. 자세한 응모 방법은 CJ Musical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8일까지 진행되는 ‘굿바이 위크’에서는 매회차 전 관객들에게 스페셜 엽서를 배포한다. 매 회차마다 각기 다른 배우의 엽서를 배포해 관객들에게 총 7종을 모으는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고전의 묵직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뮤지컬 ‘햄릿:얼라이브’는 1월 28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공연된다. 가혹한 운명의 한가운데서 고뇌를 노래하는 ‘햄릿’ 역에 홍광호와 고은성, 욕망과 광기로 폭주하는 ‘클로디어스’ 역에 양준모와 임현수, 비운의 왕비이자 햄릿의 어머니 ‘거트루드’ 역에 김선영과 문혜원, 순수한 영혼 햄릿의 연인 ‘오펜리

어’ 역에 정재인이 출연한다.

뮤지컬 ‘모래시계’ 역시 ‘약속으로 사는 모래시계’와 ‘신념을 지키는 인물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약속으로 사는 모래시계’는 공연장 로비에 비치된 총 33종의 약속 스티커 중 하나를 선택, 모래시계를 구입한 후 약속을 지키는 인증샷을 업로드하는 이벤트다. 제작사 측은 “새해를 맞아 모래시계를 돌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약속을 정하고, 모래시계를 받아가는 ‘약속’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뮤지컬 ‘모래시계’는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동명의 인기드라마를 무대화한 작품으로 초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잘못된 시대의 억압으로 좌절하지만, 이를 극복해 나가며 자신들의 우정과 사랑을 지켜 나가는 세 청년, 태수, 헤린, 우석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드라마의 감성을 더욱 북돋아주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상징성과 현대적인 재해석인 가미된 세련된 무대, 신선호 안무감독과 서정주 무술감독이 협력하여 만든 강렬한 액션과 안무가 관객을 즐겁게 한다.

2월 11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올림픽 유치 ‘6558일’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

영화 ‘예스 평창’ 다음달 개봉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예스 평창’이 2월 개봉한다. 영화 ‘예스 평창’은 2003년 동계올림픽을 첫 도전한 이후 두 번의 고배를 마신 강원도 평창이 2011년 7월 삼수만에 올림픽 유치를 성공하기까지의 6558일의 긴 여정을 담은 감동 로드 무비로서 올림픽유치를 운명으로 여기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동계올림픽을 꼭 개최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오롯이 헌신했던 많은 이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담겨진 감동영화다.

영화에는 박용성 전 대한체육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박선규 전 문광부 차관 등 평창올림픽유치에 참여했던 정재계 인사들 및 유치위 관계자

들 수십여명과 외국 IOC위원 등 험난한 유치과정과 더불어 숨겨진 비화까지도 과감히 그려내어 치열했던 국제 스포츠 전장의 현장을 과감하게 보여준다.

또한 가슴으로 열망했던 강원도민들과 평창군민들 그리고 뒤에서 이를 응원했던 평창 서포터즈들 그리고 5천만 국민의 열망까지 고스란히 등장한다.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국민 지지도 90프로에 가까운 열망에 힘입어 평창은 올림픽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세 번째 도전을 결정하고 그리고 올림픽 역사상 가장 뜨거운 유치 행보를 더한다. 영화에는 18년의 대장정과 기다림 끝에 2011년 7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평창의 승전보를 울려 퍼지게 한 진정한 주인공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울려 퍼진다. /최규춘 기자 ch9720@

“음악적으로 더 완벽하고 싶지만 완벽주의 절반은 내려놓고 싶어”

신곡 ‘버튼’으로 돌아온

장재인

“윤종신 선생님은 권위적이지 않아요. 서로 잘 빠지는데 금방 또 풀려요. 애증의 관계죠.”

말 그대로 애증의 사제다. 스승 윤종신의 손을 잡고 돌아온 장재인은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이하 미스틱)의 새해 첫 주자라는 것에 부담도, 기대도 적지 않은 모습이었다.

최근 미스틱에서 메트로신문과 만난 장재인은 15일 발매된 신곡 ‘버튼(BUTTON)’에 대해 “윤종신 선생님이 가사에 최첨단 기술을 넣어 새로운 시도를 한 곡”이라고 설명했다.

장재인은 말처럼 ‘버튼’은 ‘최첨단’을 내세운 곡이다. 윤종신이 작사, 작곡하고 조정치가 편곡한 이 곡은 멜로디는 포크 스타일이지만, 가사만큼은 시대를 앞서간다. 윤종신이 영국드라마 ‘블랙 미러(Black Mirror)’를 보고 영감을 얻어 작사했기 때문이다.

버튼 하나로 잊고 싶은 일을 지울 수 있다는 내용의 가사를 두고 윤종신과 장재인의 해석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장재인은 “(윤종신) 선생님은 ‘이별’을 주제로 쓰셨지만 저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불렀다”며 “아티스트들은 각자 해석하는 게 다르다. 선생님의 해석을 존중하고, 선생님도 저의 해석을 존중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노래 부를 땀 젖 오리지널리티를 잃지 않으려고 했어요.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는 자유로움 같은 거요. 이번 작업은 제 의견도 많이 들어갔고, 선생님도 대화를 많이 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하하.”

미스틱의 새해 첫 주자로 나서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굳이 강조할 일인가 생각도 들었지만 좋은 일이지 않나. 어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며 “작년에



미스틱 새해 첫주자 어필하고파 올해 목표는 ‘음악적 실력 향상’

인기를 얻었던 ‘좋니’, ‘좋아’의 흥행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작년에 이어서 또 한번 ‘최첨단’ 가사를 노래하는 미스틱 여자 솔로가 됐어요. 윤종신 선생님이 ‘5년 뒤에는 과학기술이 가사로 뜰 거야’라고 자주 강조하시는데, 저도 직접 한번 써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언젠가 될진 모르겠지만요. ‘가사 장인’ 윤종신 선생님의 새로운 시도가 장재인으로부터 시작된 거란 걸 강조하고 싶어요. 윤종신 가사의 새 시대, 그 영감을 이끈 뮤즈가 바로 저인 거죠. 하하. 농담이에요.”

여성 솔로 가수들을 비롯해 컴백 대란이 이어지는 1월이기에 차트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 터. 그러나 장재인은 “윤종신 선생님과 에디킴 오빠가 항상

강조하는 멘트가 있다. ‘음악 좀 들을 줄 아는’, ‘고품격’을 지향하는 걸로 포장하면 어떨까”라며 “음악은 위로다. 힐링되는 음악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좋은 멘토, 좋은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음악을 꾸준히 해올 수 있었기에 장재인의 음악적 욕심은 매일, 매순간 더욱 많아질뿐이다. 그래서 올해의 목표 역시 ‘음악적 실력 향상’이다. 다만 지금껏 이어온 완벽주의는 절반 정도 내려놓을 생각이란다. 그는 “음악적으로 더 완벽한 가수가 되고 싶다. 하지만 저 스스로만 다그치고 싶다. 매니저 등 스태프들이 저로 인해 퇴근을 못하거나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며 “저 홀로 연습실에 남아서 연습하고 고뇌하면서 오직 저만 다그치고 싶다. 완벽주의 성향을 딱 50%만 발휘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재인은 올해 “죽을 듯한 각오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했다. 아마 그 자신감의 바탕엔 미스틱이란 든든한 울타리가 있을 것이다. 윤종신의 감성에 장재인의 오리지널리티가 더해진 ‘버튼’을 시작으로, 또 어떤 ‘장재인 표 음악’이 탄생 할지 기대가 모이는 이윽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사건/미스틱엔터테인먼트

알고보는 평창동계올림픽 9 쇼트트랙

금메달 3개 목표... 3개 이상도 기대 경쟁 우선시대 ‘이변’ 잦아 박진감 ↑

한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에서 최소 금메달 3개를 목표로 내걸었다. ‘효자종목’인 만큼 그 이상의 메달도 기대된다.

사실 쇼트트랙의 정식 명칭은 ‘쇼트트랙(Short track) 스피드스케이팅’이다. 스피드스케이팅으로 불리는 ‘롱트랙(Long track)’에서 독립된 종목이기 때문이다.

쇼트트랙의 시초는 1900년대 북미에서 인기를 끌던 경주식 스피드스케이팅이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트랙의 길이, 경기 방식 등 규칙이 명확해지면서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은 독립 종목이 됐다.

쇼트트랙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인정 받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스피드스케이팅은 1924년 제1회 사모니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포함됐으나, 쇼트트랙은 1992년 제16회 알베르빌 대회부터다.

한국에서 쇼트트랙은 ‘메달밭’으로 불린다. 쇼트트랙이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나온 144개 메달 중 42개(금 21개·은 12개·동 9개)를 싹쓸

韓 효자종목... ‘금빛 행진’ 노린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30일 앞둔 10일 오후 인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G-30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쇼트트랙 ‘강세’의 이유로 체계적이고 많은 양의 훈련, 우수한 코치들의 지도력, 체형의 이점을 꼽았다.

쇼트트랙은 좁은 트랙에서 겨루는 종목인 만큼 신체의 중심이 낮고 안정적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체형이 크고 근육질인 서양 선수보다 작고 탄탄한 동양 선수들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선수들은 폭발적인 파워가 필요한 단거리 종목보다 지구력이 중요한 장거리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쇼트트랙은 선수간 접촉 및 충돌로 인해 ‘이변’이 잦은 종목이기도 하다. 쇼트트랙의 묘미는 박진감 넘치는 경주식

레이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록을 중시하는 스피드스케이팅과 달리 경쟁이 우선시 된다.

쇼트트랙의 세부 종목은 남녀 500m와 1000m, 1500m, 계주 남자 5000m, 여자 3000m로 나뉜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평창올림픽에서 금빛 행진을 노린다. 메달이 확실시 되는 종목은 ‘쌍두마차’ 최민정, 심석희가 출격하는 여자 1000m, 여자 1500m, 여자 3000m 계주다. 최민정은 사상 처음으로 쇼트트랙 4종목 금메달 싹쓸이를 노린다.

임효준, 황대헌 등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한 남자 대표팀의 전력도 만만치 않은 만큼 기대가 모인다. /김민서 기자

오늘의 날씨

1월 17일

음력: 12월 1일

수도권 날씨

0 ~ 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4/6

동두천 -2/8

가평 -4/6

파주 -4/6

서울 0/7

양평 -1/6

인천 0/5

수원 0/7

용인 0/7

평택 0/7

백령도 0/5

해돋이 / 07:45 | 해질 / 17:3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산업]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 “올해 1.5兆 이상증자 발판, 내년 매출 7兆 회복 자신” 10



[중소기업·창업] 내실 다지고 떠나는 임채운 Life “중진공, 이전 도약할 것”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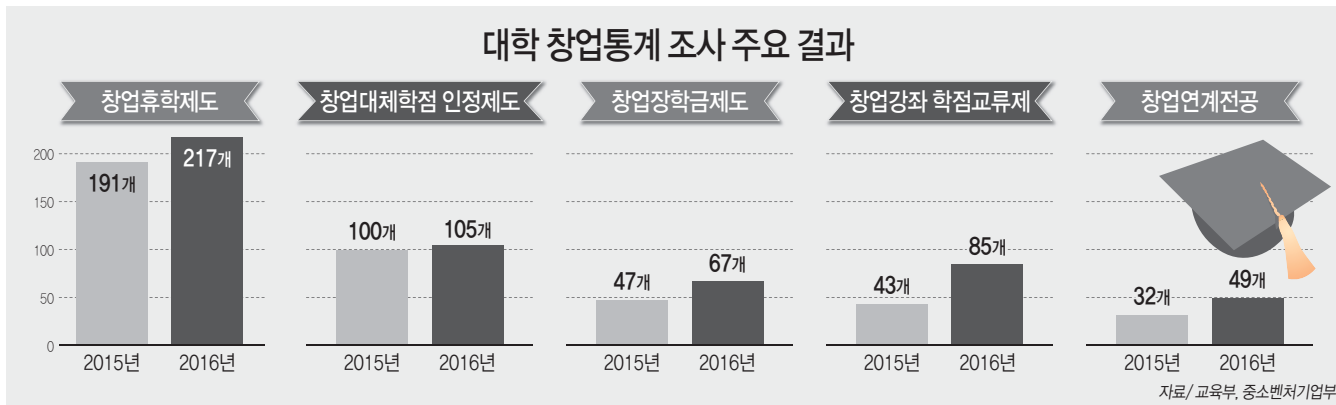


‘대학 창업 열기 후끈’... 창업강좌 1년새 두배 ↑

대학의 창업강좌가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창업휴학제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는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창업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원창업과 대학원생 창업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던 ‘대학 산학협력 활동 실태조사(교육부)’와 ‘대학창업인프라 실태조사(중기부)’를 일원화한 ‘2017 대학 창업 통계 조사’ 결과를 16일 공동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이버대학교와 기능대학 등을 포함한 전국 4년제 대학 273곳, 전문대학 149곳 등 총 422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두 부처가 그동안 발표해 온 대학 창업 관련 통계는 내용은 일부 유사했지만, 통계 작성기준과 대상이 상이해 대학이나 창업기업 등 관계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예컨대 창업동아리 조사에서 교육부는 ‘지도교수가 있고 대학에 등록된 동아리를 기준’으로, 중기부는 ‘지도교수가 없거나 대학에 미등록된 동아리도 포함’



창업휴학제 등 친화적 제도 확대 창업동아리 전년비 25% 증가 등 수 늘었지만 연간 매출 실적 초라

해 조사하는 식이었다.

조사 결과 ‘창업휴학제’와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도’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대학이 증가했고, 창업강좌수, 창업동아리 수, 학생·교원 창업기업 수 등 대학의 창업 관련 주요 지표가 큰 폭으로 개

선됐다.

특히 창업강좌 수는 2016년 기준 1만 461개로 전년 4262개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창업강좌 운영학교는 313개교로 학교당 33.4개 창업 강좌가 개설됐다. 이밖에 창업휴학제도 217곳,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 105곳, 창업장학금 제도 67곳, 창업강좌 학점교류제 85곳, 창업연계전공 49곳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가 전년 대비 5.0%~125% 증가했다.

학생들의 창업 열기 커졌지만, 창업 실적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창업동아리

는 5468개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 대학생 창업자는 1328명, 창업기업 수는 1191개로 나타났다. 이들 창업기업의 총 매출액은 143억5500만원으로 창업수와 매출액이 각각 38.3%와 72.7% 증가했다.

하지만 창업기업 1곳 당 연간 매출액은 1200만원 수준에 그쳐 직원 인건비 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창업 업종으로는 지식서비스업이 42.1%, 제조업 13.4% 등 기술기반 업종이 55.5%를 차지했고 고용인원은 542

명으로 집계됐다.

교원창업의 실적은 더 초라하다. 교원 창업은 총 195개로 전년 137개에서 42% 증가했으나 총 매출액은 약 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5% 감소했고, 총 고용 인원은 168명으로 기업당 고용 인원이 0.9명에 불과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원 창업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와 교원 창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 창업 유인책을 검토하고, 창업 친화적 교원인사제도 메뉴얼을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원생 창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학생과 학부 중심으로 창업 지원이 이뤄졌고, 학생 창업 대부분 초기 창업기업으로 매출실적은 크지 않다”면서 “앞으로는 교원창업과 대학원생 창업 등을 통해 기술창업을 유도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창업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취준생 취업 준비에 월평균 27만원 쓴다

취업 준비 자금 꾸준히 증가... 가까운 비용은 ‘어학능력시험’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을 위해 쓰는 비용은 월평균 27만원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아깝다고 생각하는 비용은 ‘어학능력시험 비용’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함께 취업준비생 14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취업준비자금은 월 평균 27만2302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된 24만713원보다 13.1% 증가한 수준으로 취업 준비를 위한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준생 10명 중 7명은 취업준비자금 대부분을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께 지원받아 쓴다는 취업준비생도 46.4%(복수응답)를 차지

했다.

취업준비에 쓰이는 비용 중 가장 아깝다고 느끼는 항목은(복수응답) △ 어학능력시험에 사용한 비용(35.9%)으로 조사됐다. 이어 △ 면접에 드는 교통비(29.5%)와 △ 면접 의상 구입 비용(20.4%) △ 커피나 음료 값 등 취업스터디 하며 드는 비용(19.5%) △ 이력서 사진촬영 비용(17.0%) 등도 취업준비 할 때 써야 하는 가까운 비용으로 꼽혔다.

이밖에 △ 인적성검사 등 취업준비 도서 구입 비용(13.2%) △ 졸업유예 및 추가 수강을 위해 드는 비용(11.8%) △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비용(10.5%) △ 자소서 첨삭 컨설팅 비용(10.4%) 등의 순이었다. /한용수 기자

신입사원 합격 스펙은? 학점 최소 3.1 이상

평균 학점 3.5, 토익 733점, 자격증 2개

올해 기업 신입사원 합격자들의 학점과 토익점수 등 스펙은 어떻게 될까. 지난해 기준 학점 자격조건이 있는 기업이 요구하는 학점은 평균 3.1점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 기업 104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신입사원 합격스펙’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합격자들은 평균적으로 학점 3.5점, 토익 733점, 자격증은 2개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 합격자 평균 학점(3.5점)은 같은 해 상반기(3.4점) 대비 0.1점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3.3~3.6점 미만’(35.6%)이 가장 많았다. ‘3.6~3.9점 미만’(26%), ‘3.0~3.3점 미만’(19.2%), ‘3.9~4.2점 미만’(8.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 기업 중 53개사가 학점 자격조건이 있었고, 이들 기업 중 71.7%는 ‘일정 학점 이상 동일하게 평가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최소 학점 자격조건은 ‘3.0점 이상’(50.9%), ‘3.5점 이상’(32.1%), ‘2.5점 이상’(13.2%), ‘4.0점 이상’(3.8%)의 순으로 평균 3.1점으로 집계

됐다.

토익 평균점수는 733점으로 같은해 상반기보다 41점 하락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700~750점 미만’(18.8%), ‘600~650점 미만’(18.8%), ‘750~800점 미만’(15.6%), ‘800~850점 미만’(14.1%), ‘650~700점 미만’(9.4%), ‘900~950점 미만’(6.3%), ‘850~900점 미만’(4.7%), ‘550~600점 미만’(4.7%), ‘950점 이상’(3.1%) 등이었다.

신입사원 10명 중 9명은 평균 2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49.5%), ‘1개’(28%), ‘3개’(15.1%), ‘4개’(3.2%), ‘6개’(2.2%) 등의 순으로 답했다.

기업의 76%는 신입사원 채용 시 ‘자격증 관련 조건이 있다’고 답했다. 자격증을 평가에 반영하는 직무는 ‘제조/생산’(22.8%, 복수응답), ‘재무/회계’(20.3%), ‘서비스’(16.5%), ‘연구개발’(15.2%), ‘영업/영업관리’(13.9%) 등이 있었다. /한용수 기자



장충체육관 실내 모습. /서울시

장충체육관 3년만에 82만명 ‘제2의 전성기’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장한 지 3주년 문화·스포츠 행사 유치로 성황리 운영

장충체육관 제2 전성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재개장 3주년을 맞는 장충체육관이 누적관객 82만2000명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충체육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배구·농구·핸드볼 등 모든 실내 스포츠 경기는 물론 문화공연에 특화된 최첨단 시설을 갖춰 뮤지컬·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도 가능한 체육·문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 했다.

17일 재개장 3주년을 맞는 장충체육관은 서울 연고 프로배구단인 우리카드 남자배구단과 GS칼텍스 여자배구단의 홈구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배구경기 76회를 비롯해 자선축구대회, 이종격투기, 탁구대회 등 총 107회의 스포츠 경기가 열렸다.

색소폰 연주자 케니지의 내한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로 총 61회 개최됐다. 일반 행사는 86회 열리는 등 3년간 총 254회의 행사가 699일간 펼쳐졌다.

스포츠 경기 외에도 아이오아이(I.O.I), 몬스타엑스 등 아이돌그룹부터 케이윌, 에일리, 태진아, 송대관 등 유명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악극, 매직쇼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열렸다.

재개장 후 최대 관객이 찾은 행사는 지난해 11월 12일 진행된 프로배구 남자부 우리카드 대 KB손해보험, 여자부 GS칼텍스 대 흥국생명 간의 경기다. 이날 경기는 5851명의 관객이 찾았다.

주체육관 이외에도 장충체육관 지하 보조체육관은 아마배구리그, 소규모 체육대회, 동호회 생활체육의 장으로 이용되면서 3년간 1451회, 4만70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12월에 문을 연 다목적실도 피트니스, 댄스연습 등 생활체육과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돼 총 1078회, 약 2만9000명이 방문했다.

장충체육관은 2016년 4월부터 매주 화요일 주로 6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밸런스 운동교실과 튠탄질 운동교실 등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민 3200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은 “50년 만에 새롭게 태어난 장충체육관은 지난 3년간 스포츠 경기 뿐 아니라 각종 문화예술 행사 유치로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장충체육관을 실내 스포츠의 새로운 성지이자, 서울의 대표적 문화체육시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범중 기자 joker@

• LG전자는 국가대표 아이스하키팀과 스켈레톤팀, 피겨 차준환 선수를 후원합니다



아이스하키
신소정 선수

아이스하키
한수진 선수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선수

아이스하키
박종아 선수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스켈레톤 선수들을
LG전자가 응원합니다



감동의 2018년! 1등 LG 올레드 TV 특별전(2017.12.22~2018.2.28)

행사1. LG 올레드 TV 구매 인증 고객 대상 총 2,018명에게 황금 20등 다양한 경품 제공
행사2. UHD 화질급 LG TV 구매시, '티브이'지상파 UHD 방송/VOD 서비스 3개월 무료 이용 혜택 및 UHD 안테나 무상 설치

*구매 모델에 따라 혜택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LG전자 홈페이지 및 공식 판매처에 문의하세요